

가계의 엔젤계수, 엔젤계수 및 슈바베계수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소득계층을 중심으로

The Effects of Engel Coefficient, Angel Coefficient and Schwabe Index Influencing Household Head's Life Satisfaction
: according to Income Quintile

오 윤 희(Yun-hee Oh), 김 순 미(Soon-Mi Kim)*

Department of Consumers' Life Inform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Engel coefficient, Angel coefficient and Schwabe index influencing Household head's life satisfaction. For this study, the data from the 8th analysis of the 2013 Korea Welfare Panel Survey conducted by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were used. For the sample, 903 male Household heads with children under the age of 18, were selected. For statistical analysis, SPSS program (Ver. 21.0) was used. And for statistical methods, frequency and percentil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Pearson's correlation, one way analysis of variance,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s of analyzing the food costs, education costs and housing costs depending on Income Quintile, the food costs and education costs in the 5th Income Quintile compared with other Income Quintile, were highest. Also, the highest housing cost was in the 2nd Income Quintile, while the least housing cost was in the 1st Income Quintile. Second, by analyzing the differences of Engel coefficient, Angel coefficient and Schwabe index according to Income Quintile, the results show that Engel coefficient and Schwabe index decreases as Income Quintile increases, and Angel coefficient increases as Income Quintile becomes higher. Third, the level of HH's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Income Quintile, 1st Income Quintile, 2nd Income Quintile, 4th Income Quintile, 3rd Income Quintile, 5th Income Quintile in order, increased. Fourth, as the result of analyzing the influence of Variables related to household and demographics about Engel coefficient, Angel coefficient and Schwabe index, it was shown that the variables effecting Engel coefficient, Angel coefficient, and Schwabe index are age, occupations, Number of workers, House ownership, Income Quintile. Fifth,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Variables effecting life satisfaction, especially while Schwabe index is not that significant, Engel coefficient and Angel coefficient are shown to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Therefore, the influence of Food costs and education costs can be confirmed.

▲주제어(Key words): 엔젤계수(engel coefficient), 엔젤계수(angel coefficient), 슈바베계수(schwabe index), 생활만족도(life satisfaction), 소득계층(income Quintile)

• 본 논문은 2014년 한국가정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Corresponding Author : Soon-Mi Kim, Department of Consumers' Life Inform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99, Daehak-ro, Yuseong-gu, Daejeon 305-764, Korea, Tel: +82-42-821-6841, E-mail: kimsm@cnu.ac.kr

I. 서론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의 비교성향(relative concern)은 일과 지위 및 물질을 중시하여 경제적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한다. 뿐만 아니라 비교성향은 소비와 생활수준에 영향을 미쳐 비교성향이 높을수록 과소비와 과시적 소비경향을 보이지만,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는 오히려 낮아진다(H. Kim, 2014). 우리나라도 1960년대 이후 비교성향이 동인이 되어 높은 경제성장과 소득 증가를 가져왔고 의식주의 소비지출 비중도 감소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식비 비중과 교육비 부담의 확대, 그리고 주거비 상승으로 인해 소비생활의 질적 수준이 악화되면서, 삶의 질 유지와 회복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에너지 총조사 보고서(2011)에 의하면, 가계가 소비생활에서 느끼는 경제적 부담요인으로 식생활비(37%), 교육비(19.4%), 에너지 비용(15%)을 들고 있다(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2012). S. Choi and J. Lee(2015)가 분석한 1990년부터 2013년까지의 우리나라 중산층 삶의 질 변화를 보면, 식비항목에서 2013년 가계지출 대비 식료품비 비중은 평균 14%이며, 소득 상위 5분위는 12%, 소득 하위 1분위는 21%를 보여 소득계층 간 양극화 현상을 볼 수 있다. 또 교육항목에서 소비지출 대비 교육비 지출비중은 1990년 13.4%에서 2013년 20.9%로 증가하여 저소득층 20.2%와 고소득층 19.3%보다 높았으며, 증감율도 7.5% 포인트로 다른 계층보다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특히 가처분소득에서 학원비와 과외비 등이 차지하는 사교육비 부담은 2000년 6.8%에서 2013년 10.5%로 올라, 고소득층 8.3%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주거항목을 보면, 전세보증금은 연평균 11.8%씩 상승하여 다른 계층에 비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가처분소득 대비 전세보증금 부담도 1990년 1.1배에서 2013년 3.1배로 늘어 중산층의 전세부담이 가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통계청에서 실시한 국민 삶의 질 지표에서, 소비생활 만족도는 2009년 13.3%에서 2011년 12.7%, 2013년 13.6%로 큰 변화가 없었지만, 주택가격을 가구당 연소득으로 나눈 주거비부담 지표는 2011년 4.3배, 2013년 5.1배로 증가하여 삶의 질 수준이 저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Statistics Korea, 2015).

경제성장과 소비지출, 행복감 및 삶의 만족도의 관계는 전통적 경제이론의 현시선호이론부터 Easterlin(1974)의 역설(Esterlin paradox)과 이를 반박하는 Hagerty and Veenhoven(2003)과 Stevenson and Wolfers(2008)을 포함하는 행복경제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입장에서 설명된

다. 전통적 경제이론에서는 개인에 의해 관측가능하고 표현되는 효용을 현시선호이론(revealed preference theory)에 입각하여 설명한다. Samuelson(1938)에 의해 개발된 이 이론은 기존의 소비자이론에서 실제로 관찰 불가능한 선호 및 효용 등의 개념을 버리고 단순히 시장에서 관찰 가능한 현시행위로 추정되는 재화와 용역에 의존하여 무차별곡선과 수요곡선을 도출하며(Wikipedia), 소비지출의 규모와 행태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둔다. 한편 행복경제학의 고전이라 할 수 있는 이스털린의 역설은 소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고 개인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면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은 크게 변하지 않으며, 한 국가 안에서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더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국가 간 비교를 하면 기본수요를 충족한 국가의 국민1인당 소득과 행복지수는 비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이에 반해 Hagerty and Veenhoven(2003)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행복도가 높아진다고 주장하여 역설은 없다고 하였고, Stevenson and Wolfers(2008)은 개인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도 소득의 절대규모가 클수록 행복도가 높다고 하였다. 이에 Easterlin, McVey, Switek, Sawangfa, and Zweig(2010)은 37개국 지표를 바탕으로 자신의 이론을 다시 입증하였다. 이처럼 행복이나 삶의 만족도에 대해 상반된 이론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이론들은 기본수요가 충족되어 현시선호된 소비지출을 행복과 삶의 만족도의 필요요건으로 정리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소득뿐만 아니라 소비, 성격, 외모 등과 같은 다양한 차원의 비교성향에 따라 행복감이 달라진다고 본다(H. Kim, 2014).

인간의 궁극적 목적인 행복(또는 행복감)은 생활만족도로 평가되며, 생활만족도는 '좋은 삶(the good life)'이라는 개념의 주관성에 기반을 둔다. 즉, 좋은 삶의 개념과 요소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생활만족도가 달라진다(Frey & Stutzer, 2002 ; Diener et al, 2009). 좋은 삶의 개념은 정의에 따라 달라지는 주관적 특성 때문에 실증적 분석에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경제학자들은 행복과 관련된 주관적 변수의 개발을 통하여 생활만족도에 대한 검증에 꾸준히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객관적 지표로서의 소비지출과 주관적 지표로서의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들은 많지 않으며(E. Lee & D. Park, 2011; H. Lee, K. Han, & G. Jeon, 2013), 특히 소비지출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가계의 소비지출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 가계의 부담으로 대두되는 교육비, 주거비와 소비성 지출항목인 식비가 소득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소비지출 항목이 생활만족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우리나라 가계의 소비지출 실태와 부담

1) 소비지출 실태

J. Lee(2014)가 발표한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계의 지출항목 중 경직성 지출비중은 2003년 26.4%에서 2013년 29.0%로 증가하였다. 이 중 교육비와 주거비는 비교적 지출규모가 크면서 필수 지출항목이지만 경기변동과의 상관관계가 점차 낮아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경직성이 강화되고 있다. 교육비의 비중은 2003년 8.7%이었고 2013년도 거의 같은 비중을 보여 큰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2009년 이후 유치원비 지원 확대, 대학 등록금 인상제한 등으로 인해 공교육비 지출이 감소한 반면 사교육비가 소폭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또 2013년 말 현재 교육비 관련 가계부채가 2012년보다 12.3% 증가하여 28조 4천억원에 달하고 있고, 교육비 관련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전체 가계부채 증가율 6.0%의 2배를 상회하여 교육비 부채부담이 경직성 지출비중의 증가를 억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가계의 주거비는 같은 기간 7.8%에서 8.2%로 그 비중이 약간 증가하였다. 이는 전기료·가스비 등의 공공요금 상승과 관리비 등 주거관련 서비스 비용이 증가한 데다 2011년 이후 전세가격 상승률이 소득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주택금융대출이 증가하였고 전월세 전환율도 은행 대출금리를 크게 상회하여 모든 소득분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식료품, 음식·숙박, 의류·신발과 같은 소비성 지출항목의 비중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4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하면(Statistics Korea,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Korea & Statistics Korea, 2015), 2013년 가구당 평균 소득과 평균 소비지출(식비·주거비·교통비·의료비 등)은 전년대비 각각 4.4%, 0.2% 증가하여, 소비의 증가율이 소득의 증가율만큼 높지 않았는데, 이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가계가 소비지출을 제한하거나 감소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계의 기본 소비성 지출항목이 심각한 변화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비와 주거비 같은 경직적 지출 비중이 증가하여, 가계수지의 개선을 제한하고 나아가 가계 재무건전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개연성을 볼 수 있다.

2) 소비지출의 부담

가계의 소비지출 부담을 측정하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경제지표를 들 수 있다. 경제지표는 지출항목의 총액을 파악하거나 총소비지출에서 각 지출항목별 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수화하는 것으로써, 다른 시점 내지 다른 집단과의 비교가 가능하고 소비지출 부담에 대한 해석에도 유용하다. 뿐만 아니라 계수의 비교와 변화를 통하여 경제상황의 개선과 악화를 확인하고 경제지표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이나 사항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준다. 반면에 경제지표는 해당 경제지표가 내포하고 있는 계량화의 시점, 대상, 문화 등과 같은 요인들의 변화를 명확히 인식한 후 그 내용을 해석해야 하는 제한점도 있다(J. Park, 2014). 이에 본 연구는 식비, 교육비, 주거비가 총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경제지표로 엔겔계수(Engel coefficient), 엔젤계수(Angel coefficient) 및 슈바베계수(schwabe index)를 활용하고자 한다.

(1) 엔겔계수

생계비의 3대 비목 중 하나인 식비는 식료품비, 외식비, 비주류음료 지출 등을 포함하며, 엔겔계수는 총지출 중 식료품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엔겔(Ernst Engel)에 의하면 식비는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어떠한 가구도 일정한 정도의 소비를 하며 무조건 많이 소비해야 만족도가 높은 것은 아니어서, 소득이 증가해도 식비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이 적을수록 식비지출의 비중이 크고, 반대로 소득이 많을수록 식비지출의 비중은 낮다(Wikipedia). 이처럼 저소득층에서 엔겔계수가 높고 고소득층에서 엔겔계수가 낮은 현상을 엔겔의 제1법칙(Engel's law)이라 하였고, 엔겔계수가 25% 이하는 최상류, 25~30% 상류, 30~50% 중류, 50~70% 하류, 70% 이상은 극빈층으로 구분하고 있다(Hankyung dictionary).

전통적인 엔겔계수는 식비에 외식비를 제외한 식료품, 비주류음료 지출만을 포함하며, 가구당 가구원수, 가구원의 연령 등도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구주 연령별 가구간의 엔겔계수를 비교하는 경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엔겔계수가 낮다는 엔겔의 제1법칙과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기도 한다. 이에 우리나라는 외식비가 포함된 보정 엔겔계수를 사용하는데 최근 우리나라의 엔겔계수는 평균 14%이며, 고소득 상위 20%는 12%, 저소득 하위 20%도 21% 수준을 보였다. 이에 반해 선진국의 엔겔계수는 30% 정도인데, 이처럼 우리나라의 엔겔계수가 낮은 것은 우리나라의 농산물 가격이 여타 물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소득에 관계없이 비싼 식품을 먹으려는 경향이나

소득증가에 따른 외식비 비중이 크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J. Park, 2014).

(2) 엔젤계수

교육비는 크게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로 구성되며, 과외 교습비를 포함한 교육비, 장난감 구입비, 용돈 등이 포함된다. 엔젤계수는 가계의 총 소비지출에서 18세 미만 자녀의 보육과 교육에 지출하는 비중으로, 소득이 많은 사람은 의식주 등 생존하는데 꼭 필요한 것 외에 자녀교육과 같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부분에 지출할 여유가 많기 때문에 엔젤계수와 달리 소득과 정적 관계를 보인다(Chosunbiz article, 2014.2.13).

최근 우리나라는 가계의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어 계층 간 교육격차는 물론 가계수지의 악화도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의 엔젤계수 특징과 시사점(S. Choi, 2014)에 따르면, 2013년 현재 18세 미만 자녀와 거주하면서 교육·보육비를 지출하는 엔젤가구는 전체 가구의 49.2%인 561만 가구였고, 엔젤가구의 소득계층별 교육 및 보육비 지출은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높았다. 또 소득계층별 엔젤계수는 1분위 16.1%, 2분위 17.1%, 3분위 18.2%, 4분위 18.6%, 5분위 17.5%로, 5분위의 엔젤계수가 3분위와 4분위보다 낮으며, 평균 17.7%로 나타나 고소득층보다 중산층의 교육·보육비 부담이 소득 수준에 비해 과중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경직성때문에 교육비 지출을 줄이기가 쉽지 않은데, 이는 자녀교육을 미래 투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경제불황이라도 엔젤계수가 증가하는 것이다. 엔젤계수의 증가는 국가의 선진화를 의미하지만 한편으로는 교육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한다(PMG Common Sense Dictionary).

(3) 슈바베계수

주거비는 주거임대비, 수도, 광열비 등을 포함하며, 슈바베계수는 가계의 총 소비지출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엔겔의 제3법칙에 의하면, 주거비와 광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그러나 슈바베(Samuel Heinrich Schwabe)는 엔겔의 제3법칙에 반론을 제기하면서 가계소득이 증가하면 주택에 드는 절대액이 증가하지만 총소비지출과 비교할 때 주거비 비중이 감소한다는 슈바베의 법칙(Schwabe's law)을 제시하였다(Morris & Winter, 1978, as cited in I. Kwak & S. Kim, 1999; Meeks, 1984, as cited in I. Kwak & S. Kim, 1999).

선진국에서 슈바베계수는 빈곤의 척도로 사용되며, 슈바베계수가 25%를 넘으면 빈곤층으로 간주한다(Hankyung dictionary). 우리나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통계표를

소득별로 집계한 결과(Statistics Korea, 2015), 2013년 소득 하위 10%(소득 1분위)의 슈바베계수는 17.9%로 금융 위기가 터진 2008년의 15.6%보다 2.4% 포인트가 상승하였고 매월 소비하는 103만원 중 18만5천원을 주거비로 사용하여 같은 기간 전체가구가 9.7%에서 10.4%로 상승한 것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훨씬 크고 빠르게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임차가구의 전·월세 보증금에 따른 기회비용까지 반영한 보정 슈바베계수는 2010년 30.4%에서 2014년 34.5%로 상승하였고, 도시거주 가구의 보정 슈바베계수는 2010년 31.0%에서 2014년 35.8%로 상승했으며, 저소득층 임차가구의 보정 슈바베계수도 2010년 39.1%에서 2014년 41.4%로 상승하였다(G. Kim, 2015). 이처럼 슈바베계수가 상승하는 것은 실질소득 정체로 인한 가계구매력의 확충 미흡, 비소비지출 증가에 따른 가처분소득의 제약, 주택시장 불안에 의한 전월세가격의 상승 및 주택담보 대출, 그리고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주거연료비 부담증가(W. Ju, 2012)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가계 특성에 따라 주거비와 슈바베계수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삶의 질과 생활만족도

UN(2015)이 발표한 '2015 세계행복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행복도는 세계 158개 국가 중 47위, 갤럽조사에서 143개국 중 118위를 보였다. 또 OECD가 매년 발표하는 행복지수도 하위권에 속해 경제성장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다(Yeongnam article, 2015.7.28). 행복의 사전적 의미는 개인이 삶 전체에 대해 느끼는 만족 또는 욕구가 충족되어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로, 전반적인 삶과 삶의 욕구충족 차원에서 논의된다(J. Yoo, 2012, I. Kwak, 2013, as cited in S. Hong & I. Kwak, 2014). 일반적으로 욕구충족은 욕구를 제공하는 대상이 무엇인가와 그 대상을 통해 얼마나 충족되는 가로 볼 수 있다.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욕구충족의 대상은 생산행위와 소비행위이며, 그 중 소비행위는 생산행위에 비해 측정과 평가가 단순하고 객관적이어서 욕구충족 수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생산행위도 욕구충족에 도달하는 중요한 도구이지만 생산행위에 대한 규정이 개인마다 다르기에 대한 측정과 평가도 다양하여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욕구충족 수준은 생산행위보다 소비행위를 통해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욕구충족의 대상으로부터 얼마나 충족되었는가의 정도는 기쁨이나 만족으로 설명되며, 특히 행복을 삶 전체에 대한 기쁨이나 깊은 만족으로 보는 경우, 생활만족도의 개념을 사용하기도 한다.

경제학자들은 행복이나 삶의 만족도, 생활만족도 등을 소득의 함수로 이해한다. 즉, 한 개인이나 국가의 소비능력이 향상되면 그 개인이나 국가의 행복도 증가한다고 가정한다.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어 개인이나 가계, 그리고 이들로 구성된 국가의 행복이 증가한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듀센베리(James Duesenberry, 1949)는 상대 소득 가설(relative income hypothesis)에서, 경제성장으로 인해 국민소득이 증가해도 개인의 상대적 지위는 변함이 없으므로 행복이 소득증가에 따라 수요충족의 기대수준이 함께 증가하는 적응기대감(adaptive expectations)때문에 단순히 소득의 절대량 증가가 행복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만족도는 절대적 평가가 아니라 동시대인의 소비규범(consumption norm)과 비교하는 상대적 평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Easterlin, 1974, as cited in J. Moon, 2012). 같은 시각에서, 이스털린의 행복 경제학도 소비가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명제에서 출발하였고, 고소득층은 저소득층에 비해 평균적으로 더 행복한 반면, 시계열적으로 보면 일정 소득 이상에서는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의 증가는 거의 없거나 매우 미미하게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경제성장의 효용체감 법칙을 주장한 잉글하트(Ronald Inglehart)도 소득이 일정 수준까지 증가하면 행복지수도 급격히 증가하지만, 일정 수준을 넘으면 행복지수가 별로 증가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때 소득 수준의 증가에 따라 행복지수가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는 양(量)이 증시되는 구간이며, 변곡점을 지나 소득 수준이 증가해도 행복지수에 큰 변화가 없는 시기는 양보다 질(質)이 증시되는 구간이다(Economic review, 2015.8.10).

이처럼 행복에 대한 관심은 욕구충족에 기반을 둔 물질적 풍요와 안전에서 시작되었으나 점차 삶의 지속가능성, 삶의 질, 생활만족도 등이 행복의 범주에 포함되었다(Stiglitz et al, 2009, as cited in H. Lee & S. Shim, 2010; Y. Lim, 2012). 생활만족도는 삶을 의미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기대했던 목적을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정도, 개인의 욕구를 환경과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충족하는 정도는 삶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차이에 따라 달라(Kalish, 1975, as cited in H. Choi & Y. Lee, 2006; S. Baek & Y. Lim, 2013), 학자마다 정의와 척도를 다양하게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생활만족도는 사회경제지표를 활용하는 객관적 척도와 개인이 자신의 삶을 인지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주관적 척도이다(Schuessler & Fisher, 1985, as cited in T. Yoo & J. Ban, 2012). 두 척도는 각각의 중요성이 서로 양립하고 있어 어느 척도가 더 적절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K. Song & Y. Gwon, 2008), 인지적 영역인 '삶의 만

족'이 개인적 경험과 사회·문화적 가변성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관적 척도가 더 선호된다(Cambell, Converse & Rodgers, 1976, as cited in T. Yoo & J. Ban, 2012). OECD(2014)는 개인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현재 그들이 삶의 상황과 조건을 어떻게 경험하고 느끼는가를 주관적 생활만족도를 10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생활만족도 수준은 6.5점으로 나타났는데, 이처럼 생활만족도 수준이 낮은 것은 다양한 요인, 인구학적 요인(Blanchflower & Oswald, 2004, Easterlin, 2006, as cited in S. Kahng, 2012), 가계관련 요인(Rohe & Stewart, 1996, Atkinson & Kintrea, 2000, as cited in B. Jeon & E. Choi, 2015), 소득이나 소비지출, 자산과 같은 경제적 요인(S. Kang, 2010; S. Kim & H. Cho, 2013 ; E. Lee & D. Park, 2011) 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특히 소득이나 소비와 같은 경제적 요인은 생활만족도를 높이는데 직접,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엔젤계수, 엔젤계수, 슈바베계수 및 생활만족도에 대한 관련변수 고찰

생활만족도에 초점을 둔 선행연구들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연령, 교육수준, 직업, 근로형태), 가계관련 요인(근로자수, 거주지역, 주택소유, 총자산), 그리고 소비지출 비중 등과 생활만족도간의 관계를 보여주었다.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먼저 연령을 보면, K. Kim(1988)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식비 지출은 감소하고, S. Lee(2003)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Y. Sung and S. Yang(1997)에 의하면, 연령이 증가할 때 주거비는 감소하지만 광열 및 수도비 지출은 증가한다. E. Lee and D. Park(2011)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생활만족도가 감소하다가 일정 연령이 지나면 다시 증가한다고 한 반면, Easterlin(2006)은 미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중년기까지 평균적으로 상승하고 그 후 점차 감소하여 \cap 자 형태를 취한다(as cited in S. Kahng, 2012)고 하여, 연령과 생활만족도의 관계는 학자마다 차이가 있다. 한편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으면, 식비와 외식비 모두 증가하고, 특히 부부의 교육수준이 매우 높은 가계(남편 대학원졸, 부인 대졸이상)는 외식비 지출규모가 매우 크다(Y. Lee & S. Yang, 1999, S. Yang & Y. Yuh, 2000). 그러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교육비가 증가하거나(S. Yang & Y. Lee, 1997), 교육비 차이가 보이지 않는 경우(S. Yang & Y. Yuh, 2000)도 있어 교육수준과 교육비의 상호관련성은 일관적이지 않다. 주거비는 교육

수준과 정적 관계를 갖지만 광열·수도비와 교육비는 무관하며(S. Yang & Y. Yuh, 2000), 가구주 학력이 고졸 이상일 때보다 고졸이하일 때 주거비 및 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담이 높은 경우(H. Lee, 2012)도 있어 주거비와 주거비 비용에 대한 교육수준의 영향도 일관적이지 않다. E. Lee and D. Park(2011)은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전반적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B. Kim, C. Chung and M. Park(2008)은 직업과 소비지출의 관계에서, 자영업자의 식료품비 비중이 근로소득자보다 크다고 하였고, H. Choe(2000)는 사무직보다 판매서비스직, 기능근로직과 단순노무직일 때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교육비 비중이 적어 직업에 따라 교육투자의 욕구가 다르다고 하였다. I. Kwak, and S. Kim(1999)의 연구에 따르면 직업에 따라 주거비용은 변화하였다. 한편 생활양식과 삶의 질을 연구한 S. Chung(2014)은 전문·관리직, 사무직, 기술직, 서비스·판매, 자영업, 학생·무직, 노무직, 전업주부 순으로 삶의 질이 낮아져 직업별 삶의 질 차이를 설명하였다. S. Sohn & S. Yang(1999)은 취업주부가계의 식료품비 지출이 비취업주부가계보다 적지만 외식비 지출은 더 많다고 하였고, Nickols, Fox(1983)는 취업주부가계의 외식비 지출이 전업주부가계보다 적다(as cited in S. Yang & Y. Yuh, 1998)고 하여, 근로형태와 식비지출의 관계는 일관적이지 않다. 또 Y. Kim and M. Sim (1994)은 가구주의 직업이 주생활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하였다고 하였다. 한편 T. Yoo and J. Ban(2012)은 고용상태가 우위이거나 안정된 계층에서 삶의 질이 높다고 하였다.

2) 가계관련 요인

근로자수를 보면, 맞벌이가구보다 홀벌이가구의 교육비 지출이 20% 더 많으며(Walden, 2005, as cited in S. Kim, 2013), 이는 전업주부의 자녀교육 투자시간이 취업주부보다 많아 사교육비 지출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J. Seok, B. Kim & H. Noh, 2012). 또 식료품, 주거광열비는 맞벌이가구에 비해 홀벌이가구가 더 많이 지출하였고, 교육비, 외식비는 맞벌이가구가 더 많이 지출하였다(S. Kim, 2013). 한편 D. Hwang(2001)은 취업자수가 증가할수록 빈곤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하여 취업자수와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다. 거주지역이 특별시나 광역시일 때보다 다른 지역일 때 식료품비를 더 적게 지출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E. Hwang & S. Lee, 1999). 또 사교육비는 서울보다 다른 지역에 거주할 때 더 낮았고(J. Park, 2006; H. Baek & S. Ahn, 2012), 주거비도 광역시나 특별시에 거주할 때보다 다른 시에 거주할 때 광열·수도비의 지출이 적었

다(E. Hwang & S. Lee, 1999). 한편 E. Lee and D. Park(2011)은 수도권 거주자의 생활만족도가 도 거주자보다 낮다고 한 반면, T. Yoo and J. Ban(2012)은 대도시 거주자보다 중소도시나 읍면단위에 거주할 때 삶의 질 수준이 높다고 하였다. 주택소유형태를 보면, 자가가계와 전세가계는 식료품비에 예산을 가장 많이 지출하였고, 월세가계는 식료품비에 예산의 절반 이상을 사용하였다(H. Kim & H. Choe, 1999). 또 S. Moon and S. Joung(1995)에 의하면 월세가계보다 자가가계의 외식비 지출이 더 많았다. 교육비는 자가가계와 전세가계가 월세가계보다 더 많이 지출하였다. 특히 주택가계의 사교육비 비중은 무주택가계보다 높았다(H. Baek & S. Ahn, 2012; J. Park, 2006). 주거비에서는 월세가계가 예산의 절반이상을 사용하여 주거비 부담이 컸고(H. Kim & H. Choe, 1999), 임대가구는 주거비 및 에너지 비용 부담이 기타 가구보다 컸다(H. Lee, 2012). 한편 J. Jeong(2012)과 B. Jeon and E. Choi(2015)는 주거점유형태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E. Hwang and S. Lee(1999)는 가계의 총자산이 많을수록 식료품비 지출이 많았고, H. Kim and H. Choe(1999)는 순자산의 변화에 교육비는 정적 반응을 하지만 주거비는 반응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한편 T. Yoo and J. Ban(2012)은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물론 소득 및 자산과 같은 객관적 환경들이 우위에 있거나 안정된 계층에서 삶의 질이 높았고, D. Kim, E. Park and S. Kim(2009)은 기타 부동산, 예적금, 저축성보험, 공적연금, 개인연금을 많이 보유할수록 삶의 만족에 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기타자산은 삶의 만족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생활만족도는 자산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소득

경제적 요인에서 소득과 지출의 관계를 보면, 식료품비와 외식비는 가계소득과 정적 관계를 보였고(S. Sohn & S. Yang, 1999), 특히 월평균소득이 많을수록 식료품비 지출이 많았다. 한편 우리나라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계뿐만 아니라 경제적 압박이 있는 가계도 선택적 지출을 자제하고 교육비 비중을 높이는 경향이 있다(E. Hwang & S. Lee, 1999). 특히 가구소득이 증가할 때 가계의 교육비 중 사교육비 비중이 증가하고 예산제약이 클수록 사교육비 비중이 감소하며, 상류층 가구와 중산층 가구의 사교육비 비중은 비슷하게 유지되는 반면 중산층 가구는 사교육비 비중의 변화가 민감하게 반응하여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비중의 변화를 알 수 있다(H. Baek & S. Ahn, 2012). 소득은 주거비와도 관련이 있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주거비와 광열·수도비, 에너지 비용이 더 많았고(E.

Hwang & S. Lee, 1999; H. Kim & T. Kim, 2008; H. Lee, 2012), 가구소득 중 주거비나 에너지 비용의 비중이 높았다(H. Lee, 2012). 소득과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보면, 가계의 지속적인 소득창출과 유지하는 삶의 질을 향상시켜 (S. Kim & H. Cho, 2013), 소득수준이 높거나 안정된 계층에서 삶의 질이 높다(T. Yoo & J. Ban, 2012; S. Kahng, 2012). 이처럼 저소득층보다 중산층, 중산층보다 고소득층의 생활만족도가 높아 소득계층에 따라 생활만족도의 차이가 있다(E. Lee & D. Park, 2011).

4) 소비지출

E. Hwang and J. Sohn(2013)이 발표한 한국소비자원의 2013 한국 소비생활지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소비생활 만족도는 평균 2.86점(4점 만점)으로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면 평균 71.5점이었다. 특히 경제적 부담을 느낀 소비지출 항목에 대해 소비자의 26%가 식비, 21.5%가 교육비라고 응답하여 삶의 질 저하의 주요 요인을 알 수 있다. J. Lee(2014)의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서는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주거비, 교육비, 의료·보건비와 공적연금·사회보험 등의 경직성 지출 비중이 2003년 26.4%에 비해 2013년 29%까지 상승하였고, 특히 주거비는 같은 기간 7.8%에서 8.2%로 상승하였으며 교육비는 8.7%로 2003년과 동일한 수준에 머물렀다. 한편 S. Chung(2014)은 의식주생활양식과 삶의 질의 관계에서, 삶의 질에 가장 연관성이 높은 것은 주생활양식이라고 하였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우리나라 가계의 소비지출 중 식비, 교육비, 주거비 비중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계의 소득계층에 따라 소비지출 중 식비, 교육비, 주거비의 차이가 있는가? 둘째, 가계의 소득계층에 따라 앵겔계수, 엔젤계수 및 슈바베계수의 차이가 있는가? 셋째, 가계의 소득계층에 따라 생활만족도의 차이가 있는가? 넷째,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가계관련 요인이 앵겔계수, 엔젤계수 및 슈바베계수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다섯째,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가계관련 요인, 그리고 앵겔계수, 엔젤계수, 슈바베계수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분석자료 및 연구표본

연구문제 분석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실시한 제8차 한국복지패널조사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전국 7,312가구와 가구원 14,530명을 대상으로 한 종단면 조사로,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근로빈곤층 포함) 및 차상위층의 규모,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등을 역동적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전체 표본의 약 50%를 중위소득 60%미만 저소득층에 할당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가중치를 반영하였다. 연구표본은 조사대상자 중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취업자로, 교육비 분석을 위해 18세미만 자녀를 둔 남성가구를 추출하였다. 이때 남성가구주로 한정된 것은 조사대상자 중 여성가구의 표본이 현저히 적기 때문이며, 소득계층을 구분하기 위해 소득이 없는 가구주는 제외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 사용된 최종표본은 523명(가중치 전 최종표본)이며, 개인횡단 표준가중치를 적용한 분석 표본은 903명이다.

3. 분석방법

표본가구의 기초분석을 위해 단순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실시하였다. 연구문제의 분석에서 소득계층에 따른 식비, 교육비 및 주거비의 차이, 소득계층에 따른 앵겔계수, 엔젤계수 및 슈바베계수의 차이, 소득계층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정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앵겔계수, 엔젤계수, 슈바베계수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에 앞서 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SPSS (Ver.21.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4. 변수의 측정방법 및 조사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종속변수는 생활만족도로, 제8차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 사용한 '귀하는 전반적으로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의 설문으로 측정하였고 앵겔계수, 엔젤계수, 슈바베계수는 총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식비, 교육비, 주거비의 비중으로 측정하였다. 이때 소득은 경상소득을 사용하였고 소득계층은 경상소득을 5분위로 구분하였으며, 소득과 자산은 로그값을 취하였다. 또 식비, 가정식비, 외식비, 주거비, 월세, 주거관리비, 광열수도비의 지출변수와 경상소득과 소득계층의 소득변수는 가구원수를 고려한 균등화지수를, 교육비, 공교육비, 사교육비의 지출변수는 자녀수를 고려한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였

Table 1. Measurements of Independent Variables

(N=903)

Independent Variable	Measurement	N	%	Mean	S.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ge	Years	903	100.0	45.040	6.196
Education level	1. High school or less	420	46.5		
	0. University level or higher	483	53.5		
Occupation	1. Professional & Management	227	25.2		
	2. Office workers	182	20.1		
	3. Sales & Service (Hospitality)	131	14.5		
	4. Agriculture & Fishery & Labor work	79	8.8		
	5. Technician and related job	102	11.3		
	6. Equipment Assembler & operator	181	20.0		
Employment Status	1. Full-time	583	64.5		
	2. Temporary & on call	104	11.5		
	3. Employer, self-employed	216	24.0		
Household related factors					
Family size	Number of family members	903	100.0	4.120	.803
Number of children	Number of children who are under 18 in the family	903	100.0	1.677	.691
Number of workers	Number of those who are employed in the family	903	100.0	1.982	.870
Residential area	1. Seoul & Metropolitan city	800	88.6		
	0. Other ares	103	11.4		
House ownership	1. Own	629	69.7		
	2. A lease on deposit	160	17.7		
	3. Monthly rent	114	12.6		
Total Asset	Total asset 2012.12.31. Standard (10,000 won) residing house+owned property+occupied property+financial asset +agricultural machine+agricultural, live stock products+other asset	903	100.0	24281.290	244071.776

다. 이처럼 균등화지수를 적용한 것은, 가구자료의 특성상 동일한 소득을 가진 가구라도 가구원수에 따라 가구의 실질소득이 다르고, 18세미만 자녀수에 따라 교육비 지출이 다를 수 있어 형평화¹⁾하는 작업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지출변수와 소득변수, 계층변수의 균등화지수는 제곱근 형평화 척도(Square root scale)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식비, 교육비, 주거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연령, 교육수준, 직업, 근로형태), 가계관련 요인(가구원수, 자녀수, 근로자수, 거주지역, 주택소유, 총자산)을 선정하였다. 변수들의 측정방법과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Table 1>, <Table 2>와 같다.

IV. 연구결과

1. 소득계층에 따른 식비, 교육비, 주거비의 차이

소득계층에 따른 식비, 교육비, 주거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이때 경상소득, 식비 및 주거비는 가구균등화지수를, 교육비는 자녀균등화지수를 적용하였다.

1) 소득계층에 따른 식비

소득계층에 따른 식비의 차이를 보면, 식비, 가정식비, 외식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식비의 경우, 가장 적게 지출한 소득계층은 1분위로 36.909만원이었고 2분위 44.943만원, 3분위 48.968만원, 4분위 54.740만원, 5분위 56.244만원 순으로 증가하였다. 사후검정 결과, 1분위보다 2분위, 2분위보다 3분위, 3분위에 비해 4분위와 5분위의 식비가 더 많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 가정식비는 1분위가 23.389만원으로 가장 적었고 5분위는 30.967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후검정

1) 가구소득을 형평화하는 방법에는 크게 OECD 형평화 척도, 수정된 OECD 형평화 척도, 제곱근 형평화 척도 등이 있다. 첫째, OECD 형평화 척도(OECD equivalence scale)는 가구의 첫 번째 가구원(가구주)은 1, 나머지 성인 가구원은 각각 0.7, 그리고 자녀들은 각각 0.5의 비중을 주어 가구소득을 균등화시키는 방법이다. 둘째, 수정된 OECD 형평화 척도(OECD-modified scale)는 가구주는 1, 나머지 성인 가구원은 각각 0.5, 그리고 자녀들은 각각 0.3의 비중을 두는 방법으로 Hagenaars 외(1994)이 제시하였다. 셋째, 최근 OECD의 출판물에 사용되는 제곱근 형평화 척도(Square root scale)는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는 방법이며 국가 간 소득분배의 불평등도와 빈곤을 비교하는데 사용된다(G. Cho & J. Yoo, 2013).

Table 2. Measurements of Dependent Variables (N=903)

Dependent variable	Measurement	N	%	Before using the Square root scale		After using the Square root scale [@]	
				Mean	S.D.	Mean	S.D.
Life Satisfaction	How well are you satisfied with your life? (# 5points)	903	100.0	3.655	0.608	3.655	0.608
Engel coefficient	(Total food costs/total consumption expenditure)*100 (%)	903	100.0	23.904	6.772	20.101	6.551
Total food costs	Grocery+eating out+alcohol & cigarette (10,000 won/month)	903	100.0	97.384	27.788	48.382	13.771
Grocery	Average grocery cost (10,000 won/month)	903	100.0	55.976	18.765	27.651	8.797
Eating out	Average eating out cost (10,000 won/month)	903	100.0	36.415	18.499	18.224	9.635
Angel coefficient	(Total education costs/total consumption expenditure)*100 (%)	903	100.0	14.694	8.581	12.160	7.155
Total education costs	Public education cost+Private education cost (10,000 won/month)	903	100.0	65.703	50.284	32.411	24.465
Public education	Average public education cost (10,000 won/month)	801	88.7	26.595	35.854	11.796	17.334
Private education	Average private education cost (10,000 won/month)	728	80.6	52.243	43.377	20.615	21.585
Schwabe index	(Total housing costs/total consumption expenditure)*100 (%)	903	100.0	7.031	4.112	5.907	3.569
Total housing costs	Rental fee+Maintenance fee+Water/Gas/Electricity (10,000 won/month)	903	100.0	28.527	18.972	14.242	9.720
Rental fee	Average rental fee(+monthly rent) (10,000 won/month)	95	10.5	22.928	15.240	1.266	4.560
Maintenance fee	Average maintenance fee (10,000 won/month)	825	91.4	10.319	16.902	4.692	8.193
Water, Gas, Electricity	Average Water, Gas, Electricity (10,000 won/month)	903	100.0	16.684	6.292	8.294	3.333
Other Variables							
Ordinary income	Family income in 2012 (10,000 won/yearly)	903	100.0	7193.594	3487.423	3586.880	1781.661
	Earned income+business income+property income+private transfer income+public transfer income						
Income Quintile (natural logarithm)	Measuring ordinary income Quintile from 1st to 5 th (10,000 won/yearly)						
	1 st Quintile	180	20.0	3578.661	783.201	1728.629	335.142
	2 nd Quintile	180	20.0	5099.031	670.871	2505.950	177.724
	3 rd Quintile	178	19.8	6382.195	607.376	3182.478	193.721
	4 th Quintile	183	20.3	8365.315	1171.164	4104.508	361.307
	5 th Quintile	181	20.0	12510.050	3205.237	6397.535	1616.508
Total Consumption Expenditure	(Total expenditure-total non consumption expenditure) (10,000 won/month)	903	100.0	434.817	161.064	263.349	106.133

[@] Square root scale(family) : Ordinary income÷√Number of family members, Consumption Expenditure(or food costs, housing costs)÷√Number of family members

Square root scale(Children) : Education costs÷√Number of children

5 Likert Scale : very dissatisfied (1), dissatisfied(2), usually (3), satisfied (4), very satisfied(5)

Table 3. Food costs, Education costs & Housing costs according to Income Quintile(10,000 won/month) (N=903)

	Income Quintile	Mean(D)	S.D.	F		Income Quintile	Mean(D)	S.D.	F	
Total Food costs	1 st Quintile	36.909 ^a	9.798	78.969***	Grocery costs	1 st Quintile	23.389 ^a	6.635	23.420***	
	2 nd Quintile	44.943 ^b	10.990			2 nd Quintile	26.009 ^b	7.812		
	3 rd Quintile	48.968 ^c	11.303			3 rd Quintile	28.108 ^c	7.950		
	4 th Quintile	54.740 ^d	13.885			4 th Quintile	29.750 ^{cd}	9.403		
	5 th Quintile	56.244 ^d	12.893			5 th Quintile	30.967 ^d	9.740		
	Total	48.382	13.771			Total	27.651	8.797		
Eating out costs	1 st Quintile	10.771 ^a	6.591	65.049***	Alcoholic & Cigarette costs	1 st Quintile	2.749	2.983	1.573	
	2 nd Quintile	16.063 ^b	6.743			2 nd Quintile	2.870	2.981		
	3 rd Quintile	18.426 ^c	8.756			3 rd Quintile	2.433	2.407		
	4 th Quintile	22.662 ^d	10.772			4 th Quintile	2.328	3.708		
	5 th Quintile	23.122 ^d	8.901			5 th Quintile	2.155	3.617		
	Total	18.224	9.635			Total	2.506	3.183		
Total education costs	1 st Quintile	30.099 ^a	22.872	68.049***	Public education costs	1 st Quintile	11.419 ^a	19.543	21.194***	
	2 nd Quintile	37.557 ^a	25.164			2 nd Quintile	12.554 ^{ab}	21.130		
	3 rd Quintile	49.904 ^b	30.168			3 rd Quintile	21.228 ^{bc}	31.173		
	4 th Quintile	60.964 ^c	38.272			4 th Quintile	26.511 ^c	34.929		
	5 th Quintile	92.945 ^d	67.047			5 th Quintile	38.513 ^d	47.371		
	Total	54.332	45.657			Total	22.064	33.885		
Private education costs	1 st Quintile	18.680 ^a	18.337	29.502***						
	2 nd Quintile	25.003 ^a	20.115							
	3 rd Quintile	28.676 ^b	26.197							
	4 th Quintile	34.453 ^b	35.746							
	5 th Quintile	54.433 ^c	54.704							
	Total	32.268	35.854							
Total housing costs	1 st Quintile	11.913 ^a	6.291	5.583***	Rental fee	1 st Quintile	1.661 ^{bc}	4.269	7.347***	
	2 nd Quintile	15.699 ^b	14.106			2 nd Quintile	2.528 ^c	6.649		
	3 rd Quintile	15.185 ^b	11.049			3 rd Quintile	0.717 ^{ab}	3.925		
	4 th Quintile	13.021 ^a	6.008			4 th Quintile	1.269 ^b	4.614		
	5 th Quintile	15.476 ^b	8.223			5 th Quintile	0.149 ^a	1.392		
	Total	14.252	9.720			Total	1.266	4.560		
Maintenance fee	1 st Quintile	2.762 ^a	4.406	5.566***	Water, Gas & Electricity	1 st Quintile	7.490 ^a	2.189	10.638***	
	2 nd Quintile	5.019 ^{bc}	12.908			2 nd Quintile	8.152 ^{ab}	3.638		
	3 rd Quintile	6.240 ^c	10.217			3 rd Quintile	8.228 ^b	2.403		
	4 th Quintile	3.763 ^{ab}	3.987			4 th Quintile	7.989 ^{ab}	2.199		
	5 th Quintile	5.711 ^c	4.905			5 th Quintile	9.616 ^c	4.968		
	Total	4.692	8.193			Total	8.294	3.333		

***p < .001

D : Post-hoc(Duncan) a < b < c < d < e

결과, 1분위보다 2분위, 2분위보다 3분위와 4분위, 3분위보다 5분위가 더 많이 지출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외식비는 1분위 10.771만원에서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지출이 증가하여 5분위 23.122만원이었다. 사후검정 결과, 1분위보다 2분위, 2분위보다 3분위, 3분위에 비해 4분위와 5분위가 더 많은 외식비를 지출하였다. 이때 가정식비는 월평균 27.651만원인데 비해 외식비는 18.224만원을 지출하여 가정식비의 2/3수준을 차지하였고, 가정식비에서 가장 높은 5분위는 가장 낮은 1분위의 1.3배인 반면 외식비는 5분위가 1분위의 2배에 달해, 소득계층에 따른 외식비의 차이가 가정식비의 차이보다 높았다. 이처럼 소득계층에 따라 가정식비보다 외식비의 차이

가 크게 나타나는 결과와 가정식비 및 외식비 모두 가계 소득과 정적 관계를 보인 결과는 월평균 소득이 많을수록 식료품비와 외식비 모두 정적관계를 보이고 외식비의 급증으로 인해 소득증가에 의한 식료품비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한 선행연구(E. Hwang & S. Lee, 1999 ; S. Sohn & S. Yang, 1999)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주류·담배비는 소득계층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소득계층에 따른 교육비

소득계층에 따른 교육비 차이를 보면, 교육비, 공교육비 및 사교육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교육비

지출은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증가하여 1분위 30.099만원으로 가장 적었고 5분위 92.945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득계층간 지출격차는 심화되어 5분위는 1분위의 3배 이상을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 1분위와 2분위보다 3분위, 3분위보다 4분위, 4분위에 비해 5분위의 총교육비가 더 많았고, 소득계층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 소득계층별 공교육비를 보면, 가장 많이 지출한 소득계층은 5분위 38.513만원이었고 가장 적게 지출한 소득계층은 1분위 11.419만원으로, 5분위가 1분위의 3.5배 정도였다. 사후검정 결과, 1분위보다 3분위, 2분위보다 4분위, 3분위와 4분위보다 5분위의 공교육비가 더 많았다. 소득계층별 사교육비는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증가하여, 1분위 18.680만원에서 5분위 54.433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5분위는 1분위의 3배정도 많았다. 사후검정 결과, 사교육비도 소득계층 1분위와 2분위보다 3분위와 4분위, 3분위와 4분위보다 5분위가 더 많았고 소득계층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공교육비와 사교육비의 월평균 지출을 보면, 각각 22.064만원과 32.268만원이었으며 사교육비의 지출은 공교육비의 1.5배였다. 이러한 결과는 보건사회연구원의 빈곤층 실태조사(2012)에서, 초·중·고생 자녀를 둔 가구의 월평균 공교육비가 7만1,000원, 사교육비는 28만1,000원으로 사교육비가 공교육비보다 많았고(hankookilbo article, 2012.6.5), 빈곤층의 사교육비 지출은 중산층과 상층가구보다 적다는 H. Baek and S. Ahn(201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처럼 교육비 투자의 계층별 불평등을 보여주는 결과는 부모세대의 소득격차가 자녀세대의 교육격차로 연결되어 경제적 지위의 세대 간 재생산 경향을 강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한 K. Nam(2008)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소득계층에 따른 주거비

소득계층에 따른 주거비의 차이를 보면, 주거비, 월세, 주거관리비, 광열·수도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주거비가 가장 낮은 소득계층은 1분위로 11.913만원이었고, 4분위 13.021만원, 3분위 15.185만원, 5분위 15.476만원, 2분위 15.699만원의 순으로 증가하였다. 사후검정 결과, 1분위와 4분위보다 2분위, 3분위, 5분위의 주거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 월세를 가장 많이 지출한 소득계층은 2분위로 2.528만원이었고, 1분위 1.661만원, 4분위 1.269만원, 3분위 0.717만원, 5분위 0.149만원의 순으로 감소하였으며, 사후검정 결과, 5분위보다 3분위와 4분위, 4분위보다 2분위의 월세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한국의 사회동향 2014에서 전세가 감소하는 대신 보증부 월세 비중이 크게 증

가하였다(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2014)는 보고와 관련이 있다. 또 주거관리비가 가장 적은 소득계층은 1분위로 2.762만원이었고, 4분위 3.763만원, 2분위 5.019만원, 5분위 5.711만원으로 증가하여, 3분위가 가장 많은 6.240만원을 지출하였다. 사후검정 결과, 1분위보다 4분위, 4분위보다 2분위, 2분위보다 3분위와 5분위의 주거관리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광열·수도비는 1분위 7.490만원, 4분위 7.989만원, 2분위 8.152만원, 3분위 8.228만원, 5분위 9.616만원 순으로 증가하였고, 사후검정 결과, 1분위보다 2분위와 4분위, 2분위와 4분위보다 3분위, 3분위보다 5분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종합해 보면, 1분위는 주거비의 절대액이 적었고, 2분위의 주거비, 월세, 주거관리비, 광열·수도비는 다른 분위보다 많았으며, 3분위의 월세는 낮았지만 주거관리비와 광열·수도비는 많은 지출하고 있어 총주거비가 많았다. 그러나 4분위는 다른 분위보다 주거관리비와 광열·수도비도 적어 주거비도 적었는데, 이는 식비 및 교육비에 많은 지출을 하고 있고 자가를 소유하기 때문으로 유추할 수 있다. 또 5분위는 주거관리비와 광열·수도비 지출이 많아 총주거비 또한 많았으며, 자가거주 비율이 높아 월세가 낮게 측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임대료와 주거관리비의 합인 주거비가 증가한다는 H. Kim and T. Kim(2008)과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을수록 주거비 중 에너지 비용의 비중이 더 크다는 H. Lee (2012)의 연구결과와 다른 결과이다.

2. 소득계층에 따른 앵겔계수, 엔젤계수, 슈바베계수의 차이

소득계층별 앵겔계수, 엔젤계수, 슈바베계수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정을 실시하였다. 이때, 경상소득, 앵겔계수, 엔젤계수, 슈바베계수에 사용된 식비, 교육비, 주거비와 소비지출은 가구균등화지수, 자녀균등화지수를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앵겔계수, 엔젤계수, 슈바베계수는 <Table 4>와 같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1) 소득계층에 따른 앵겔계수

전체가계의 앵겔계수는 평균 20.101%로, 2014 가계금융·복지조사(Statistics Korea,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Korea & Statistics Korea, 2015)에서 2013년 식비(외식비, 식비, 비주류음료)를 총소비지출로 나눈 앵겔계수 27.4%와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었다. 소득계층별 앵겔계수를 보면, 가장 높은 분위는 1분위로 24.086%이었

Table 4. Engel coefficient, Angel coefficient & Schwabe index according to Income Quintile (N=903)

Coefficient	Income Quintile	N	%	Mean	S.D.	F
Engel coefficient	1 st Quintile	180	20.0	24.086 ^e	6.504	60.467***
	2 nd Quintile	180	20.0	22.334 ^d	6.716	
	3 rd Quintile	178	19.8	20.010 ^c	5.879	
	4 th Quintile	183	20.3	18.782 ^b	5.131	
	5 th Quintile	181	20.0	15.318 ^a	4.653	
	Total	903	100.0	20.101	6.551	
Angel coefficient	1 st Quintile	180	20.0	18.520 ^{ab}	12.621	5.151***
	2 nd Quintile	180	20.0	17.872 ^a	11.023	
	3 rd Quintile	178	19.8	19.506 ^{ab}	11.327	
	4 th Quintile	183	20.3	20.585 ^{bc}	12.144	
	5 th Quintile	181	20.0	23.032 ^c	12.793	
	Total	903	100.0	19.907	12.114	
Schwabe index	1 st Quintile	180	20.0	7.824 ^c	3.991	45.820***
	2 nd Quintile	180	20.0	7.255 ^c	4.261	
	3 rd Quintile	178	19.8	5.894 ^b	3.240	
	4 th Quintile	183	20.3	4.456 ^a	2.000	
	5 th Quintile	181	20.0	4.129 ^a	2.158	
	Total	903	100.0	5.907	3.569	

*** $p < .001$

D : Post-hoc (Duncan) a < b < c < d < e

고, 2분위 22.334%, 3분위 20.010%, 4분위 18.782%, 5분위 15.318%로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감소하였다. 사후검정 결과, 5분위에 비해 4분위, 4분위에 비해 3분위, 3분위에 비해 2분위, 2분위에 비해 1분위의 엔젤계수가 더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식비 비중이 하락한다는 엔젤의 제1법칙과 일치하며, 1분위에 비해 5분위의 엔젤계수가 낮았다는 W. Ju(2012)의 연구결과와 같은 것으로서, 고소득층이 저소득보다 외식횟수가 많고 또 외식지출 수준도 높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빈곤가구와 비빈곤가구의 소비지출 중 식비지출 비중이 각각 34%, 29%로 나타난 O. Choi(2011)의 연구결과에 비해 엔젤계수가 낮은 수준이었다.

2) 소득계층에 따른 엔젤계수

전체가계의 엔젤계수는 평균 19.907%로, 2014 가계금융·복지조사(Statistics Korea,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Korea & Statistics Korea, 2015)에 따르면 2013년 엔젤계수가 13.1%였던 것에 비해 높았는데 이 차이는 자녀수를 적용한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였기 때문으로 유추할 수 있다. 또 소득계층별 엔젤계수를 보면, 가장 낮은 엔젤계수를 보인 소득계층은 2분위로 17.872%이었고 1분위 18.520%, 3분위 19.506%, 4분위 20.585%, 5분위 23.032%의 순으로 증가하였다. 사후검정 결과, 2분위에 비해 1분위, 3분위, 4분위, 1분위, 3분위에 비해 5분위의

엔젤계수가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이 높을수록 교육비 비중이 증가하는 엔젤계수의 이론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특히 5분위의 엔젤계수가 2분위의 1.5배를 보인 것은, 소득이 높을수록 교육비 지출 비중이 증가한다는 I. Jang(2012)의 연구결과와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비중이 증가한다는 H. Baek and S. Ahn(2012)의 연구결과와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다. 또 총지출의 로그값이 증가함에 따라 사교육비 비중이 오목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은, 사교육비 투자의 계층별 불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모세대의 소득격차가 자녀세대의 교육격차로 연결되어 경제적 지위의 세대 간 재생산 경향을 강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밝힌 K. Nam(2008)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계층별 엔젤계수 차이가 적은 것은 모든 소득계층에서 교육비 부담이 있음을 보여준다.

3) 소득계층에 따른 슈바베계수

전체가계의 평균 슈바베계수는 5.907%였고, 소득계층이 높아질수록 슈바베계수가 점차 낮아져 1분위의 7.824%에서 5분위 4.129%로 감소하였다. 사후검정 결과, 5분위와 4분위에 비해 3분위, 3분위에 비해 2분위와 1분위의 슈바베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주거비가 총소비지출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감소한다는 슈바베의 법칙을 따르는 것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주거비 비중이 감소한다는 선행연구(Morris & Wi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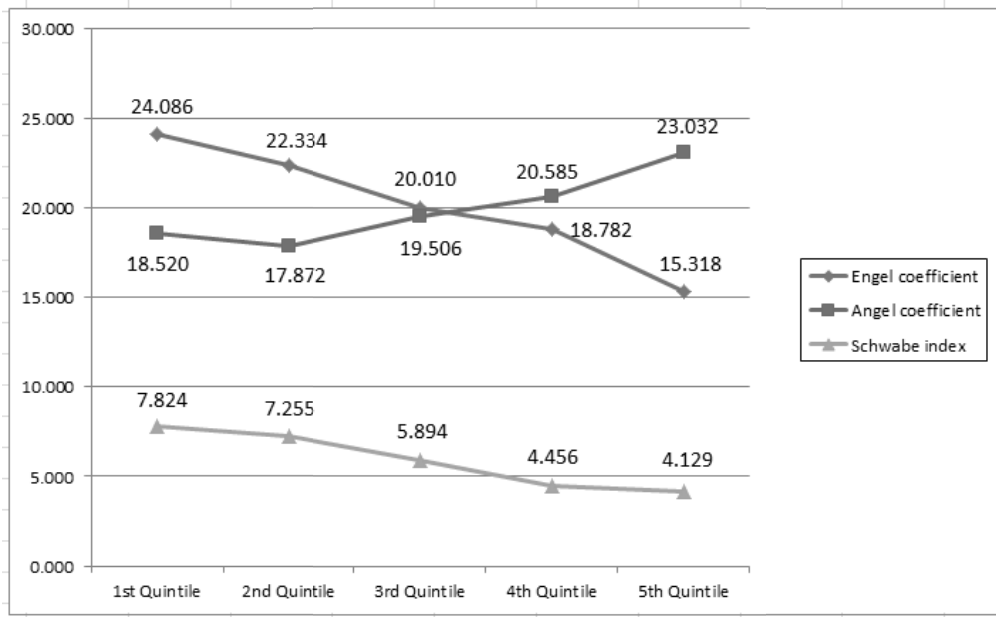


Figure 1. Engel coefficient, Angel coefficient & Schwabe index according to Income Quintile

1978, as cited in I. Kwak & S. Kim, 1999; Meeks, 1984, as cited in I. Kwak & S. Kim, 1999; W. Ju, 2012)의 결과와 같다. 전체가계의 엔젤계수인 5.907%는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의 2013년 주거비(월세, 주거관리비, 수도료, 전기료, 난방비 등)를 소비지출로 나눈 14.5%에 비해 낮았는데(Statistics Korea,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Korea & Statistics Korea, 2015), 이처럼 슈바베계수가 낮은 것은 가구균등화지수의 적용과 관련이 있거나 2011년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한 전세 및 월세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2013년의 슈바베계수가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유추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소득계층에 따른 엔젤계수, 엔젤계수, 슈바베계수의 변화는 <Figure 1>과 같으며, 소득계층이 높아질수록 엔젤계수와 슈바베계수는 감소한 반면 엔젤계수는 증가하여 엔젤의 제1법칙, 엔젤계수의 이론, 슈바베 법칙을 설명하고 있다.

3. 소득계층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

남성가구주가 인식한 생활만족도를 소득계층별로 살펴 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남성가구주가 인식한 생활만족도는 평균 3.665점으로 보통 수준보다 높았으며, 가장 높은 생활만족도를 보인 소득계층은 5분위로 만족하다 (4.050점)는 수준이었고 가장 낮은 생활만족도를 보인 소득계층은 1분위로 보통수준(3.437점)을 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사후검정 결과, 1분위와 2분위에 비해 3분위와 4분위, 3분위와 4분위에 비해 5분위의 생활만족도 수준이 높았으며, 소득계층별 생활만족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계총소득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증가한다고 한 S. Kahng(2012)과 S. Kim and H. Cho(20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하지만 가구의 소득분포의 10분위별 만족도 분포를 분석한 H. Lee(2000)가 소득이 높아질수록 생활 전반 만족도는 높아지지만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그 영향이 미미하다는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4. 엔젤계수, 엔젤계수 및 슈바베계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엔젤계수, 엔젤계수 및 슈바베계수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가계관련 요인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고, 분석에 앞서 모형에 사용된 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엔젤계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연령, 직업(전문관리직), 근로자수, 주택소유(전세, 월세 및 기타), 소득계층(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이었고, 이러한 변수들이 엔젤계수에 미치는 총 영향력은 29.3%이었다. 구체적으로 남성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직업이 농어업·단순노무직일 때보다 전문관리직일 때 엔젤계수는 낮았고, 근로자수가 많을수록, 주택소유에서 자가일 때에

Table 5.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Income Quintile

(N=903)

	Income Quintile	N	%	Mean	S.D.	F
Life Satisfaction #	1st Quintile	180	20.0	3.437 ^a	0.605	31.402***
	2nd Quintile	180	20.0	3.502 ^a	0.731	
	3rd Quintile	178	19.8	3.679 ^b	0.649	
	4th Quintile	183	20.3	3.659 ^b	0.486	
	5th Quintile	181	20.0	4.050 ^c	0.275	
	Total	903	100.0	3.665	0.608	

***p < .001

D : Post-hoc (Duncan) a < b < c

Table 6. Factors influencing Engel coefficient, Angel coefficient and Schwabe index

(N=903)

Variable	Engel coefficient		Angel coefficient		Schwabe index	
	B	β	B	β	B	β
Age	-.096	-.090***	.479	.245****	-.081	-.140****
Education level(University or higher)	-.299	-.023	.212	.009	.180	.025
Occupation (Agriculture & Fishery & Labor work)						
Professional & management	-2.039	-.135**	3.596	.129**	-1.359	-.165***
Office workers	-1.136	-.070	2.960	.098	-1.548	-.174***
Sales & Service (Hospitality)	-.757	-.041	6.680	.194****	-1.563	-.154****
Technician and related job	-1.114	-.054	5.729	.150***	-1.434	-.128***
Equipment Assembler & Operator	-1.231	-.075	4.297	.142***	-1.266	-.142***
Employment status (Full time)						
Temporary	1.010	.049	-2.350	-.062*	.600	.054*
Self-employed	.477	.031	.259	.009	.859	.103***
Number of worker	.538	.071**	1.119	.080**	-.219	-.053*
Residential area (Seoul & Metropolitan)	.899	.044	1.254	.033	.424	.038
House ownership (own)						
Lease on deposit	1.642	.096***	-2.996	-.094***	-.095	-.010
Monthly rent	2.171	.110****	-3.929	-.108***	3.905	.364****
Total asset (ln)	-.885	-.207	-.570	-.072*	-.337	-.144****
Income Quintile (5th Quintile)						
1st Quintile	5.267	.322****	-3.535	-.117**	1.444	.162****
2nd Quintile	4.283	.261****	-4.107	-.136***	1.411	.158****
3rd Quintile	2.891	.176****	-3.451	-.113***	.861	.096***
4th Quintile	2.585	.159****	-2.962	-.098**	-.259	-.029
Constant	28.077****		.077		12.390****	
R ²	.293		.133		.375	
Adjusted R ²	.279		.115		.362	
F	20.355****		7.507****		29.486****	

*p < .10, **p < .05, ***p < .01, ****p < .001

비해 전세, 월세 및 기타일 때, 소득계층이 5분위일 때보다 4분위 이하일 때 엔겔계수가 높았다. 이처럼 연령이 증가할 때 엔겔계수가 낮은 결과는, 연령이 증가하면 필수재의 비중이 증가하고 가족생활주기 중 노년기의 식비 구성비가 가장 높다고 한 H. Chun and Y. Lee(2007)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다. 또 직업수준이 높을 때 엔겔계수가 낮은 결과는, 직업수준과 소득수준의 정적 관계를 고려할 때 소득증가에 비해 식비 비중의 증가율이 따르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근로자와 엔겔계수간의 정적 관계는, 근로자수가 1명일 때 33.2%, 2명일 때

32.0%로 나타난 S. Kim(2013)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한편 자가주택에 비해 전세, 월세 및 기타주택일 때 엔겔계수가 높은 결과는 전세, 월세 및 기타가계의 재정 상태가 자가가계보다 열악하고, 월세가계보다 자가가계의 외식비 지출이 더 많다는 S. Moon and S. Joung(1995)의 연구결과와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또 소득계층 5분위에 비해 4분위이하일 때 엔겔계수가 높은 결과는 가계의 지출비목별 회귀분석에서 월평균 소득이 많을수록 식료품비 지출이 증가한다는 E. Hwang and S. Lee (1999)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다.

다음으로, 엔젤계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연령, 직업(전문관리직, 판매서비스직, 기능원·관련 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근로형태(임시·일용직), 근로자수, 주택소유(전세, 월세 및 기타), 총자산, 소득계층(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이었고, 이러한 변수들이 엔젤계수에 미치는 총 영향력은 13.3%이었다. 구체적으로 남성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직업이 농업·단순노무직일 때보다 전문관리직, 판매서비스직, 기능원·관련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일 때, 근로자수가 많을수록 엔젤계수가 증가하였고,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직일 때보다 임시·일용직일 때, 주택소유가 자가일 때보다 전세, 월세 및 기타일 때, 총자산이 많을수록, 소득계층 5분위보다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의 엔젤계수가 감소하였다. 가구주 연령증가에 따라 엔젤계수가 증가한 결과는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 교육비 비중이 가장 높고(H. Chun & Y. Lee, 2007), 주부연령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다는 S. Lee(2003)의 연구결과와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 가계의 연령별 평균소비성향이 W자 형태를 보이는 반면,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교육비 지출을 제외할 경우 일반적인 생애주기설을 따르는 뚜렷한 U자 형태를 보인다는 K. Kwon and J. Oh(2014)의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결과는 중장년층의 자녀교육비 부담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직업에서 단순노무직에 비해 사무직을 제외한 모든 직업에서 엔젤계수가 증가한 결과는 가구주 직업이 단순노무직일 때보다 사무직일 때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교육비 비중이 높다는 H. Choe(2000)의 연구 결과와는 상반된다. 또 근로자수가 많을수록 엔젤계수가 증가한 것은 전업주부의 사교육비 지출이 취업주부보다 많다는 J. Seok, B. Kim and H. Noh(2012)와 홀벌이가구의 교육비 지출이 맞벌이가구보다 20% 더 많다는 Walden(2005)의 연구결과(as cited in S. Kim, 2013)와 다른 결과이다.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직일 때보다 임시·일용직일 때 엔젤계수가 감소한 것은 근로형태가 불안정할 때 교육비 지출 비중이 감소한다는 H. Choe(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자가주택을 소유할 때보다 월세 및 기타주택일 때 엔젤계수가 낮은 것은 자가일 때보다 월세일 때, 전세일 때보다 월세일 때 교육비를 적게 지출하고, 주택을 소유할 때보다 소유하지 않을 때 사교육비 비중이 낮다는 J. Park(2006), H. Baek and S. Ahn(2012)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또 총자산이 많을수록 엔젤계수가 낮은 결과는 자산이 많은 경우 소득이 높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소득과 엔젤계수간의 부적 관계를 설명하는 엔젤계수의 법칙을 따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순자산의 변화에 교육

비가 정적 반응을 보인 H. Kim and H. Choe(1999)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5분위 소득계층보다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의 엔젤계수가 감소한 것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교육비 비중이 높다고 한 H. Kim(20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슈바베계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연령, 직업(전문관리직, 사무종사직, 판매서비스직, 기능원·관련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근로형태(임시·일용직, 고용주·자영업자), 근로자수, 주택소유(월세 및 기타), 총자산, 소득계층(1분위, 2분위, 3분위)이었고, 이러한 변수들이 슈바베계수에 미치는 총 영향력은 37.5%이었다. 구체적으로 남성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직업이 농업·단순노무직일 때보다 전문관리직, 사무종사직, 판매서비스직, 기능원·관련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일 때, 근로자수가 많을수록, 총자산이 많을수록 슈바베계수는 감소하였고,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직일 때보다 임시·일용직, 고용주·자영업자일 때, 주택소유가 자가일 때 보다 월세 및 기타일 때, 소득계층이 5분위보다 1분위, 2분위, 3분위일 때 슈바베계수가 증가하였다. 연령증가에 따라 슈바베계수가 감소한 결과는 연령이 낮을 때 월세 및 전세에 거주하지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가비용이 높아지면서 월세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주택소유 비율이 높다는 Kang, E and Ma, K.(2009)의 연구결과와 관련지을 수 있다. 한편 직업과 슈바베계수의 관계를 보면,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직보다 임시·일용직이거나 고용주·자영업자일 때 슈바베계수가 낮은 것은 고용상태가 안정될수록 주거비를 더 많이 지출한다는 Y. Kim and M. Sim(199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근로자수가 많을수록 슈바베계수가 낮은 결과는 홀벌이가구의 주거광열비가 맞벌이가구보다 많다고 한 S. Kim(2013)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다. 또 주택소유 효과에서 자가일 때보다 월세 및 기타일 때 슈바베계수가 높은 결과는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의 월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H. Kim and T. Kim(2008)과 임대가구의 주거비 및 에너지 비용 부담이 기타가구보다 높다고 한 H. Lee(2012)의 연구결과를 통해 슈바베계수의 증가를 유추할 수 있다. 총자산이 많을수록 슈바베계수가 낮은 것은 총자산에서 부동산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점을 고려할 때 자가를 보유할 확률이 높고 이로 인해 주거비 비중이 낮아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소득계층과 슈바베계수의 관계에서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슈바베계수가 높은 것은, 소득이 낮을수록 자가소유 확률이 낮아져 전월세 지출 및 에너지 비용을 포함한 주거관련 지출이 더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5.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가계관련 요인, 앵겔계수, 엔젤계수, 슈바베계수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분석에 앞서 소득계층, 앵겔계수, 슈바베계수는 가구균등화지수를, 엔젤계수는 자녀균등화지수를 적용하였으며,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가계관련 요인을 포함한 Model I을 실시하였다. 다음 단계로 앵겔계수, 엔젤계수, 슈바베계수의 영향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Model II-V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분석하였다. Model II는 Model I에 앵겔계수를, Model III은 Model I에 엔젤계수를, Model IV는 Model I에 슈바베계수를 포함하였다. Model V는 Model I에 앵겔계수, 엔젤

계수, 슈바베계수를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Model I에서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교육수준(대학이상), 직업(전문관리직, 사무종사직, 판매서비스직, 기능원·관련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근로형태(임시·일용직, 고용주·자영업자), 근로자수, 총자산액, 소득계층(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이었고, 이러한 변수들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총 영향력은 20.1%이었다. 구체적으로 교육수준이 대학이상일 때 낮은 교육수준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비지출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심리적 위축으로 인해 생활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반적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한 E. Lee and D. Park(2011)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다. 직업이 농어업·단순노무직에 비해 전문관리직, 사무종사직, 판매서비스직, 기능원·관련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일 때 생활만족도가 증가한

Table 7. Influential Factors for HH's Life satisfaction

(N=903)

Variables	Model I		Model II		Model III		Model IV		Model V	
	B	β	B	β	B	β	B	β	B	β
Age	-.003	-.026	-.002	-.019	-.004	-.039	-.003	-.032	-.004	-.040
Education level(Univ. or higher)	-.128	-.105***	-.125	-.103**	-.128	-.105***	-.126	-.104**	-.124	-.102**
Occupation (Agriculture&Fishery&Laborwork)										
Professional & management	.240	.171***	.255	.182***	.231	.165***	.230	.164***	.236	.168***
Office workers	.235	.155***	.244	.161***	.228	.150**	.224	.148**	.224	.147**
Sales & Service (Hospitality)	.186	.108***	.192	.111**	.169	.098**	.174	.101**	.159	.092*
Technician and related job	.190	.099**	.198	.103**	.175	.091**	.179	.093**	.170	.088**
Equip. Assembler & Operator	.015	.010**	.024	.016	.004	.003	.005	.003	.002	.001
Employment status (Full time)										
Temporary	-.308	-.162****	-.315	-.166****	-.302	-.159****	-.303	-.159****	-.305	-.160****
Self-employed	-.133	-.093***	-.136	-.096***	-.133	-.094***	-.126	-.089**	-.131	-.092***
Number of worker	-.040	-.057*	-.044	-.063*	-.043	-.061*	-.041	-.059*	-.050	-.071**
Residential area (Seoul & Metropolitan)	-.005	-.002	-.011	-.006	-.008	-.004	-.001	-.001	-.013	-.007
House ownership (own)										
Lease on deposit	.010	.006	-.003	-.002	.017	.011	.009	.006	.004	.002
Monthly rent	-.040	-.022	-.056	-.031	-.030	-.016	-.011	-.006	-.015	-.008
Total asset (ln)	.067	.169****	.074	.186****	.069	.173****	.065	.163****	.074	.186****
Income Quintile (5th Quintile)										
1st Quintile	-.302	-.199****	-.342	-.225****	-.293	-.193****	-.291	-.192****	-.326	-.215****
2nd Quintile	-.365	-.240****	-.397	-.261****	-.354	-.233****	-.354	-.233****	-.378	-.249****
3rd Quintile	-.252	-.165****	-.274	-.179****	-.243	-.159****	-.246	-.161****	-.260	-.170****
4th Quintile	-.296	-.196****	-.315	-.208****	-.288	-.191****	-.298	-.197****	-.311	-.206****
Engel coefficient			.007	.080**					.009	.096***
Angel coefficient					.003	.051			.003	.064*
Schwabe index							-.008	-.044	-.008	-.047
Constant	3.483****		3.274****		3.483****		3.577****		3.334****	
R ²	.201		.206		.203		.202		.211	
Adjusted R ²	.185		.189		.186		.185		.192	
F	12.365****		12.035****		11.863****		11.791****		11.197****	

*p < .10, **p < .05, ***p < .01, ****p < .001

결과는, 직업집단에 따라 삶의 질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전문직·관리직, 사무직, 기술직, 서비스·판매, 자영업, 학생·무직, 노무직, 전업주부 순으로 삶의 질이 낮아졌다는 S. Chung(2014)의 연구결과와 관련지어 볼 때 전문직에 가까울수록 삶의 질이 높아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한편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직일 때보다 임시·일용직, 고용주·자영업자일 때 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은 고용상태가 우위이거나 안정된 계층에서 삶의 질이 높다고 한 T. Yoo and J. Ban(201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근로자수와 생활만족도의 부적 관계는 취업자수가 증가할수록 빈곤하지 않을 확률이 높게 나타나 생활만족도와 관계를 유추한 D. Hwang(2001)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되는데, 이는 18세미만 자녀를 둔 남성가구주가 조사대상이므로, 맞벌이남편이 자녀양육 및 가사영역에서 높은 역할갈등을 느끼고 있다고 한 S. Kim(2005)의 연구결과와 관련지어 생활만족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총자산액과 생활만족도의 정적 관계는 자가주택, 기타주택, 사업체, 기타부동산, 예적금, 저축성보험, 공적연금, 개인연금을 보유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D. Kim et al.(2009)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며, 소득계층이 5분위일 때보다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일 때 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은 재정상태와 삶의 만족도간의 관계를 분석한 S. Kim and H. Cho(2013)가 가계총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한 연구결과와 같다.

Model II에서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남성가구의 교육수준(대학이상), 직업(전문관리직, 사무종사직, 판매서비스직, 기능원·관련기능종사자), 근로형태(임시·일용직, 고용주·자영업자), 근로자수, 총자산액, 소득계층(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엔겔계수였고, 이러한 변수들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총영향력은 20.6%이었다. 구체적으로 변수들의 영향력을 보면, 교육수준이 고졸 이하보다 대학 이상일 때,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직일 때보다 임시·일용직, 고용주·자영업자일 때, 근로자수가 많을수록, 소득계층이 5분위일 때보다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일 때 생활만족도가 낮았고, 직업이 농어업·단순노무직일 때보다 전문관리직, 사무종사직, 판매서비스직, 기능원·관련기능종사자일 때, 총자산액, 엔겔계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증가하였다. 특히 엔겔계수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결과는,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증가한 <Table 5>와 엔겔계수에 대해 소득계층이 정적 효과를 보인 <Table 6>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엔겔계수가 낮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 것과는 상반되며,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경제적 부담을 가져오는 소비지출 항목 중 식비가 26%로 가

장 높게 나타난 E. Hwang and J. Sohn(2013)의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Model III에서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남성가구의 교육수준(대학이상), 직업(전문관리직, 사무종사직, 판매서비스직, 기능원·관련기능종사자), 근로형태(임시·일용직, 고용주·자영업자), 근로자수, 총자산액, 소득계층(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이었고, 이러한 변수들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총 영향력은 20.3%이었다. 구체적으로 남성가구의 교육수준이 고졸 이하일 때보다 대학 이상일 때,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직일 때보다 임시·일용직, 고용주·자영업자일 때, 근로자수가 많을수록, 소득계층이 5분위일 때보다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일 때 남성가구의 생활만족도가 낮았고, 남성가구의 직업이 농어업·단순노무직일 때보다 전문관리직, 사무종사직, 판매서비스직, 기능원·관련기능종사자일 때, 총자산액이 많을수록 생활만족도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엔젤계수는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Model IV에서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교육수준(대학이상), 직업(전문관리직, 사무종사직, 판매서비스직, 기능원·관련기능종사자), 근로형태(임시·일용직, 고용주·자영업자), 근로자수, 총자산, 소득계층(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이었다.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변수들의 총 영향력은 20.2%이었다. 구체적으로 남성가구의 교육수준이 고졸이하일 때보다 대학이상일 때, 남성가구의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직일 때보다 임시·일용직, 고용주·자영업자일 때, 근로자수가 많을수록, 소득계층이 5분위일 때보다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일 때 생활만족도가 낮았다. 반면에 남성가구의 직업이 농어업·단순노무직일 때보다 전문관리직, 사무종사직, 판매서비스직, 기능원·관련기능종사자일 때, 총자산액이 많을수록 생활만족도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Model IV에 포함된 슈바베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Model II, Model III 및 Model IV의 분석결과를 비교하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가계관련 요인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들은 Model I에서 유의한 변수들과 같았다. 다만 Model I에 비해 Model II에 포함된 엔겔계수는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Model III의 엔젤계수와 Model IV의 슈바베계수는 유의하지 않은 변수였다. 이는 소비생활 영역 중 식비가 삶의 질에 상대적 기여를 한다고 한 Y. Jeong(1999)의 연구결과와 같고, 삶의 질 저하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소비지출 항목을 식비(26%)와 교육비(21.5%)라고 보고한 E. Hwang and J. Sohn(2013)의 연구결과와 비교하면 식비와는 같은 결과를 보이는데 반해

교육비는 다른 결과를 보여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Model V에서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교육수준(대학이상), 직업(전문관리직, 사무종사직, 판매서비스직, 기능원·관련기능종사자), 근로형태(임시·일용직, 고용주·자영업자), 근로자수, 총자산, 소득계층(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엔젤계수와 엔젤계수였고, 이러한 변수들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총 영향력은 21.1%이었다. 구체적으로 남성가구의 교육수준이 고졸 이하일 때보다 대학 이상일 때,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직일 때보다 임시·일용직, 고용주·자영업자일 때, 근로자수가 많을수록, 소득계층이 5분위일 때보다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일 때 생활만족도가 감소하였고, 가구주 직업이 농업·단순노무직일 때보다 전문관리직, 사무종사직, 판매서비스직, 기능원·관련기능종사자일 때, 총자산액이 많을수록, 엔젤계수와 엔젤계수가 클수록 생활만족도가 증가하였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 때 생활만족도가 낮은 결과는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한 E. Lee and D. Park(2011)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되며, 학력이 높을수록 소비지출에 대한 부담과 심리적 위축이 확대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가구주의 직업이 농업·단순노무직일 때보다 전문관리직, 사무종사직, 판매서비스직, 기능원·관련기능종사자일 때 생활만족도가 증가한 것은 직업에 따라 삶의 질이 다르다고 한 S. Chung(2014)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근로형태에서는 상용근로직보다 임시·일용직, 고용주·자영업자일 때 생활만족도가 낮았는데, 이는 고용상태가 우위이거나 안정된 상황에서 삶의 질이 높기 때문이다. 또 총자산액이 많을수록 생활만족도가 증가한 것은 소득 및 자산과 같은 객관적 경제 환경이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T. Yoo and J. Ban(2012)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한편 소득계층이 5분위일 때보다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일 때 생활만족도가 낮은 결과는 저소득층보다 중산층, 중산층보다는 고소득층의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한 E. Lee and D. Park(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국민소득이 증가해도 개인의 상대적 지위는 변하지 않고 수요충족의 기대수준이 함께 증가하는 적응기대감 때문에 행복이 증가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듀센베리의 상대소득가설, 소비가 곧 행복은 아니며, 소득이 일정수준에 도달하고 개인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면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이스털린의 역설, 소득이 일정수준까지 증가하면 행복지수도 급격히 증가하지만, 일정수준을 넘으면 행복지수가 별로 증가하지 않는다고 한 잉글하트의 경제성장의 효용체감 법칙과는 차이가 있는 결과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모든 모형에서 남성가구

의 교육, 직업, 근로형태, 근로자수, 총자산, 소득계층 변수가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남성가구의 교육수준과 근로자수는 생활만족도와 부적 관계를, 직업수준, 근로형태, 총자산은 생활만족도와 정적 관계를 보였다. 소득계층 5분위의 생활만족도를 다른 분위와 비교할 때, 2분위의 생활만족도가 가장 낮았는데, 이는 저소득층이 경험하는 생활만족도의 상대적 박탈감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Table 3>에서 2분위의 식비와 교육비가 적게 지출되었고 지출비중 또한 낮았으며, 2분위의 주거비도 월세와 주거관리비의 지출이 많았고 지출비중 또한 높은 결과와 관련지을 수 있다.

또한 Model V에서 엔젤계수와 엔젤계수는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지만 슈바베계수는 유의하지 않은 변수로 나타났는데, 이는 E. Hwang and J. Sohn(2013)의 연구결과에서 식비 비중과 교육비 비중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이 높다고 한 것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으며, 주거비보다 식비와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인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슈바베계수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결과는 삶의 질과 가장 강한 연관성을 보이는 것은 주생활양식이라고 한 S. Chung(2014)의 연구결과와는 다른 결과로서, 본 연구의 조사시기가 주거비 부담이 급증한 시기보다 앞선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가계의 식비, 교육비, 주거비와 생활만족도와 관계에 초점을 두고, 엔젤계수, 엔젤계수, 슈바베계수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문제로 첫째, 가계의 소득계층에 따라 소비지출 중 식비, 교육비, 주거비의 차이를 파악하였고, 둘째, 소득계층에 따라 엔젤계수, 엔젤계수 및 슈바베계수의 차이를 파악하였으며, 셋째, 소득계층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차이를 파악하였다. 넷째, 엔젤계수, 엔젤계수 및 슈바베계수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가계관련 요인의 영향력을 파악하였고, 다섯째,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가계관련 요인 및 엔젤계수, 엔젤계수, 슈바베계수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계의 소득계층에 따른 식비, 교육비, 주거비 차이를 파악한 결과, 식비, 가정식비, 외식비는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지출이 증가하였고, 5분위의 가정식비는 1분위의 1.3배인데 반해 5분위의 외식비는 1분위의 2.1배를

보여,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필수적 내식보다 선택적 외식을 더 많이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식비가 필수 재적 소비지출이므로 소득계층에 따른 식료품비, 외식비, 주류 및 담배비목의 과다지출과 세부지출 비목간의 불균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고소득층의 소비지출이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비지출 준거와 비교성향에 영향을 미치므로 고소득층의 외식비 분석이 필요하다. 한편 소득계층에 따른 교육비, 공교육비 및 사교육비는 소득계층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여 5분위의 교육비, 공교육비, 사교육비는 1분위보다 각각 3.0배, 3.4배, 2.9배 많았다. 또 사교육비의 지출은 공교육비보다 1.5배 더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계층별 교육비 차이의 주요요인이 사교육비이며 저소득층의 사교육투자가 고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현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부담을 감소시키고 상대적 빈곤이 소득계층 대물림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지원체제와 확대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 주거비 지출은 2분위가 가장 많고 1분위가 가장 적어 1분위의 1.3배를 보였다. 월세는 5분위가 가장 적고 2분위가 가장 많아 5분위의 17.0배, 주거관리비는 1분위가 가장 적고 3분위가 가장 많아 1분위의 2.3배, 광열·수도비는 1분위가 가장 적고 5분위가 가장 많아 1분위의 1.3배를 보였다. 이처럼 주거비에서 차지하는 월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결과는 저소득층의 월세부담과 주택금융대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소득계층별 앵겔계수, 엔젤계수 및 슈바베계수의 차이를 파악한 결과, 앵겔계수의 제1법칙, 엔젤계수의 이론, 슈바베계수의 법칙과 일치하였다. 먼저 소득계층이 높아질수록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식비 비중이 감소하여 앵겔계수의 제1법칙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식료품이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소비되고 또 일정 수준이상은 소비되지 않는 필수재적 재화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소득계층이 높아질수록 선택재적 재화인 외식비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엔젤계수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아 엔젤계수 이론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엔젤계수 차이보다 저소득층·중산층과 고소득층간의 차이가 더 커서 저소득층·중산층의 교육비 부담이 고소득층보다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자녀교육 투자가 경직성을 보이고 소득계층간 비교성향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의 교육투자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작업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슈바베계수는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 슈바베의 법칙과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실질소득의 정제와 월세상승을 포함한 주거비 부담이 증

가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1분위와 2분위의 주거비에서 차지하는 월세 부담은 교육비 부담과 연계되어 이중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슈바베계수의 차이가 더 심각해지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취약계층의 월세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주택지원 및 금융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소득계층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한 결과, 남성가구주가 인식한 전반적 생활만족도는 3.665점으로 보통수준이상이었으며, 소득계층에 따라 생활만족도는 1분위, 2분위, 4분위, 3분위, 5분위의 순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4분위의 생활만족도는 3분위보다 더 낮았는데, 이는 5분위와의 집단 비교성향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삶에 대한 만족도는 절대적 평가가 아니라 동시대인의 소비규범과 비교하는 상대적 평가로 이루어지기 때문(J. Moon, 2012)에, 중상류층에서 심화되고 있는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비교성향은 생활만족도의 양극화현상을 심화시키고 소득계층별 생활만족도 저하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상류층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소득계층별 상대적 박탈감의 원인을 찾고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앵겔계수, 엔젤계수 및 슈바베계수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가계관련 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앵겔계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연령, 직업(전문관리직), 근로자수, 주택소유(전세, 월세 및 기타), 소득계층(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이었고, 이러한 변수들이 앵겔계수에 미치는 총영향력은 29.3%이었다. 또 엔젤계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연령, 직업(전문관리직, 판매서비스직, 기능원·관련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근로형태(임시·일용직), 근로자수, 주택소유(전세, 월세 및 기타), 총자산액, 소득계층(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이었으며, 엔젤계수에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은 13.3%이었다. 슈바베계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 직업(전문관리직, 사무종사직, 판매서비스직, 기능원·관련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근로형태(임시·일용직, 고용주·자영업자), 근로자수, 주택소유(월세 및 기타), 총자산액, 소득계층(1분위, 2분위, 3분위)이었으며, 이러한 변수들이 슈바베계수에 미치는 총 영향력은 37.5%이었다. 각 계수에 유의한 변수들의 영향을 비교해 보면, 앵겔계수, 엔젤계수, 슈바베계수에 모두 영향을 미친 변수는 연령, 직업, 근로자수, 주택소유, 소득계층이었고 근로형태와 총자산은 엔젤계수와 슈바베계수에만 영향을 미쳐, 각 계수마다 유의한 변수는 달랐다. 특히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앵겔계수와 슈바베

계수는 감소하였지만 엔젤계수가 증가한 결과는 교육비 부담이 식비 및 주거비 부담에 미치는 영향의 상호관련성을 가늠할 수 있다. 또한 월세는 엔젤계수와 슈바베계수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엔젤계수에는 부적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저소득층 중 월세가게에 거주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경직성 지출인 식비와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커서 교육비 지출을 오히려 줄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각 계수간의 상호관련성에 초점을 둔 변수들을 파악하고 그 영향력을 분석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가계관련 요인 및 엔젤계수, 엔젤계수, 슈바베계수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교육수준(대학이상), 직업(전문관리직, 사무종사직, 판매서비스직, 기능원·관련기능종사자), 근로형태(임시·일용직, 고용주·자영업자), 근로자수, 총자산액, 소득계층(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엔젤계수, 엔젤계수였고, 이러한 변수들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21.1%이었다. 특히 교육수준, 근로형태, 근로자수, 소득계층은 생활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직업과 총자산액은 생활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생활만족도에 대한 엔젤계수, 엔젤계수 및 슈바베계수의 효과를 보면, 엔젤계수와 엔젤계수는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슈바베계수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최근 전월세 전환율이 급증하고 이에 따른 주거비 부담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필수재적 지출비목인 식비와 경직성을 띠는 지출비목인 교육비 부담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슈바베계수보다 엔젤계수와 엔젤계수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생활만족도에 대한 엔젤계수 효과는 정적으로 나타나 엔젤의 제1법칙과 일치하지 않았는데, 이는 엔젤계수 산정에서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J. Lee(2008)에 의하면 필요는 충족될 수 있지만 욕구는 절대 충족될 수 없고, 또 실제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이에 거의 정비례하여 필요 소득수준이 높아지며, 소득수준이 더 높아지면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소득을 원하게 된다는 적응이론과 소득이 높아지면 얼마간 행복감이 증가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적응 및 포부형성으로 인해 행복감이 원래 수준으로 계속 되돌아가는 디딜방야효과(Tread-mill)로 설명될 수 있다. 반면에 엔젤계수와 생활만족도의 정적 관계는 엔젤계수 이론과 일치하였는데, 이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열, 교육비지출의 경직성 강화, 그리고 18세미만 자녀수를 고려한 균등화지수의 적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써 균등화지수 및 계수의 적용 여부를 고려하여 주요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소비지출에 초점을 둔 선행연구들은 저소득층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여 왔다. 그러나 소득계층에 따른 엔젤계수, 엔젤계수 및 슈바베계수를 다룬 본 연구에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식비, 교육비 및 주거비에 대한 부담과 각 계수차이에서 나타나는 불균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분석대상을 세분화하여 각 소득계층의 소비지출 비중과 소비지출 구조를 파악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생활만족도에 대한 주요 요인으로 엔젤계수, 엔젤계수 및 슈바베계수의 영향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엔젤계수와 엔젤계수였고 슈바베계수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엔젤계수 및 엔젤계수와 생활만족도간의 상호관련성에 작용하는 슈바베계수의 영향력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소비지출의 세부비목별 상호관련성을 고려하여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계수들의 척도 및 측정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연구모형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생활만족도의 개념은 단순히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를 측정하는데 국한되었다. 그러나 생활만족도의 개념은 학자마다 다르고 측정방법도 다양하므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개념과 주관적 개념의 교차적 적용과 이에 기반한 척도의 개발과 적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엔젤계수, 엔젤계수 및 슈바베계수에 영향을 미친 변수는 연령, 직업, 근로형태, 근로자수, 주택소유, 총자산액 및 소득계층이었고,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변수는 교육수준, 직업, 근로형태, 근로자수, 총자산액, 소득계층, 엔젤계수 및 엔젤계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엔젤계수, 엔젤계수, 슈바베계수의 변화와 생활만족도간의 관계를 생애주기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 엔젤계수의 제1법칙과 엔젤계수의 이론, 그리고 슈바베 법칙의 확인에서, 선행연구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결과가 도출되었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그 결과의 원인이 가구원수와 자녀수를 고려한 균등화지수의 적용에 기인한 것인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근로자수를 고려하여, 분석대상을 세분화하여 맞벌이가구와 홀벌이가구로 구분하거나 가구원수와 가족구성을 고려하여 비교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교육 및

직업수준, 그리고 근로형태의 세분화 등을 생활만족도에 연결함으로써 분석대상의 범위를 확장하고 정교화시켜야 한다. 이외에도 본 연구자료인 한국복지패널조사는 빈곤가계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므로 해석을 일반화하는데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가계소득 구간의 표집을 확대하는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 Atkinson, R., & Kintrea, K. (2000). Owner-occupation, social mix and neighbourhood impacts. *Policy and Politics*, 28(1), 93-108.
- Baek, H., & Ahn, S. Y. (2012). The difference of the effects of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on the change of consumption structure of households depending on income bracket. *Korea Social Policy Review*, 19(3), 9-47.
- Baek, S.-J., & Lim, Y.-J. (2013). Social support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kindness and life satisfaction.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21(2), 25-36.
- Blanchflower, D., & Oswald, A. (2004). Well-being over time in Britain and the USA.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8, 1359-1386.
- Campbell, A., Converse, P. E., & Rodgers, W. L.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 Perception, evaluation and satisfaction*. Russell Sage Foundation.
- Choe, H. (2000). Comparative analysis of consumption expenditures by occupation of the household head.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8(1), 167-183.
- Choi, H.-J., & Lee, Y.-B. (2006). Life satisfaction scale for elderly : revisited.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8(3), 27-49.
- Choi, O.-G. (2011) The categorization of consumption for elderly in Korea: Focused on poverty and receipt of the public assistance.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51, 277-296.
- Choi, S. K. (2014). *Korean household angel coefficient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Vol.595). Korea: Hyundai Research Institute Weekly Economic Review.
- Cho, G., & Yoo, J. S. (2013). *KERI insight* (12-09). Korea: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 Choi, S. K., & Lee, J. H. (2015). *Korean middle class quality of life changes* (Vol.2015 No.6). Korea: Hyundai Research Institute issue report.
- Chosunbiz article. (2014.2.13). Retrieved from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2/13/2014021300586.html.
- Chun, H. J., & Lee, Y. S. (2007). Income and consumption expenditure patterns of urban salary and wage earner's household over the family life cycle.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1(1), 65-81.
- Chung, S.-K. (2014). The lifestyle and quality of life (QOL) of urban residents. *Journal of Social Science*, 25(2), 137-161.
- Diener, E. (1984). The science of well-be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Series*, 37, 11-58.
- Easterlin, R. (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 in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Essays in honor of moses abramovitz, edited by P. David and M. Reder*. New York: Academic Press.
- Easterlin, R. A. (2006). Life cycle happiness and its sources intersections of psychology, economics, and demography.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7, 463-482.
- Easterlin, R. A., McVey, L. A., Switek, M., Sawangfa, O., & Zweig, J. S. (2010). The happiness-income paradox revisited.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07(52), 22463.
- Economic Review. (2015.8.10.). Retrieved from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56700>
- Hagerty, M. R., & Veenhoven, R. (2003). Wealth and happiness revisited - growing national income does go with greater happin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64, 1-27.
- hankookilbo article. (2012.6.5). Retrieved fr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264900>
- Hankyung dictionary. Retrieved from <http://s.hankyung.com/dic/>
- Hong, S. H., & Kwak, I. S. (2014). Effects of intergenerational support exchange with their adult children on the happiness of the middle-aged parents.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 Association*, 18(1), 69-91.
- Hwang, D. S. (2001). Dynamic analysis on poverty since the economic crisis. *Quarterly Journal of Labor Policy*, 1(2), 31-59.
- Hwang, E., & Sohn, J. (2013). *Consumption life indicators in Korea*. 2013. Korea: Korea Consumer Agency.
- Hwang, E.-A., & Lee, S. S. (1999). A study on the consumption expenditure and patterns of urban household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7(8), 117-132.
- Jang, I. S. (2012). Cost of living index after reducing substitution bias and reflecting group-wise differences: Measurement and applications. *Korean Journal of Public Finance*, 5(4), 1-35.
- Jeon, B. J., & Choi, E. Y. (2015). Effects of characteristics of social exclusion, housing tenure type in life satisfaction of older adults and buffering effect of social network. *Journal of Social Science*, 26(1), 77-107.
- Jeong, J.-H. (2012). The factors influencing the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between urban and rural elderly.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Journal*, 21(6), 121-128.
- Jeong, Y. S. (1994). Household economic stability of the insular areas and quality of life: Hansan island area. *Journal of Consumer Studies*, 5(1), 57-69.
- Jeong, Y. S. (1999). A study on the impact of the consumption satisfaction on the elderly's quality of life: Pre-elderly and the elderly. *Journal of Consumer Studies*, 10(1), 43-59.
- Ju, W. (2012). *Housing cost burden (schwabe index) increasing rapidly* (Vol.78). Korea: Hyundai Research Institute issue report.
- Kahng, S. K. (2012). An exploratory study on generation differences in life satisfaction and related factors: generational comparisons using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3(4), 91-119.
- Kalish, R. (1975). *Late adulthood: Perspectives on human development*, Berkely, CA: Cole Publishing co.
- Kang, E.-T., & Ma, K.-R. (2009).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household choices of dwelling: Focu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home owning renters. *Housing Studies Review*, 17(1), 5-22.
- Kang, S. J. (2010). The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life-satisfaction in Korea. *Economics Research*, 58(1), 5-36.
-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2012). *Energy consumption Survey 2011*. Korea: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 Kim, B., Chung, C., & Park, M.-H. (2008). Shift of engel curve for the self-employed and income under-reporting. *Korean Economic Review*, 56(3), 151-170.
- Kim, D. B., Park, E. Y., & Kim, S. W. (2009). The study on life satisfaction of older people by the asset types: Focused on the moderation effects of economic activity. *Social Welfare Policy*, 36(3), 471-494.
- Kim, G. S. (2015). *A lease on deposit · monthly rent and schwabe index trend analysis* (Vol.638). Korea : Hyundai Research Institute Weekly Economic Review.
- Kim, H. J. (2013). The polarization of educational spending in Korea(1990~2012). *MARXISM* 21, 10(4), 45-66.
- Kim, H. (2014). *Relative concern: Pros and cons and lessons to be learned* (No.44). Korea: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 FOCUS.
- Kim, H.-R., & Choe, H. (1999). The influences of household income and asset in the consumption expenditures according to housing tenur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7(10), 91-106.
- Kim, H.-S., & Kim, T.-H. (2008). Housing welfare policy based on minimum housing standards and affordability.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59, 223-245.
- Kim, K.-O. (1988). The effect of education on efficiency in consumptio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26(1), 123-136.
- Kim, S. (2013). Changes in household expenditure structure in the transition to dual-earner society in Korea: comparing dual-earner and one-earner households' consumption. *Family and Culture*, 25(4), 34-59.
- Kim, S. W., & Cho, H. S. (2013). The impact of financial condition on life satisfaction for Korean baby boomers - comparison between employed and non-employed baby boomers. *Financial Planning Review*, 6(3), 1-33.
- Kim, S.-M. (2005). Dual earner families' child care alternatives and policy implication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3(6), 105-116

- Kim, Y. S., & Sim, M. Y. (1994). An analysis of housing consumption expenditure in urban salary and wage - earners' households - from 1982 to 1992 -.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2(2), 1-15.
- Kwak, I. S. (2013). Study on family strength and happiness of the pre-elderly and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51(1), 1-16.
- Kwak, I.-S., & Kim, S.-M. (1999). A study on the total housing cost of households living in rental hous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7(2), 127-144.
- Kwon, K. & Oh, J. (2014). The implications of by age changes in the propensity to consume and macroeconomic. *Economic Outlook*, 31(1), 51-61.
- Lee, E, & Park, D. (2011). Differences of consumption level and satisfaction of living between Korean middle class and the other classes. *Journal of Korean Cultural Industries*, 11(2), 41-64.
- Lee, H. G., & Shim, S. J. (2010). An exploratory study on reconstruction of social indicator system. *Journal of Social Research*, 11(1), 47-77.
- Lee, H. S. (2000). Impact of income on subjective quality of life.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23(1), 91-117.
- Lee, H.-J. (2012). Housing cost burden of single- or two-person households in their 20s and 30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3(2), 69-77.
- Lee, H.-S., & Han, K.-C., & Jeon, G.-B. (2013). Impact on quality of life of single-parent female head of household economic stres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3(3), 174-183.
- Lee, J. (2014). *Financial stability report* (ISSN 1975-6607). Korea: Bank of Korea.
- Lee, J. J. (2008). *우리는 행복인가?*. Korea: Hangilsa.
- Lee, S. S. (2003). Focused on income classification = the effects of household financial system on private education expense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1(11), 151-169.
- Lee, Y. G., & Yang, S. J. (1999). For urban salary and wage earner households =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s of food expenditures and househol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8(1), 63-79.
- Lim, Y.-J. (2012).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among Korean police officers, university students, and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31(3), 877-896.
- Meeks, C. (1984). *Housing*. Prentice-Hall.
- Moon, J.-Y. (2012). A study of the easterlin paradox-with special references to satiation point-.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4(10), 53-77.
- Moon, S.-J., & Joung, S.-H.(1995). A studies of consumption expenditure patterns: Between single mother family and adoptive parents in Seoul area. *Journal of Consumer Studies*, 6(2), 53-65.
- Morris, E. W., & Winter, M. (1978). *Housing, family and society*, New York : John wiley and sons.
- Nam, K. G. (2008). Does the rich family spend more share of expenditure to private tutoring? - The relationship between total consumption expenditure and the share of private tutoring cost -. *Journal of Korean Economic Development*, 14(1), 27-53.
- Nickols, S. Y., & Fox, K. D. (1983). Buying time and saving time: Strategies for managing household produc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0, 197-208.
- OECD. (2014). Better Life Index 2013. Retrieved from <http://stats.oecd.org>.
- Park, J. (2014). Navercast Engel's coefficient. Retrieved from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235&contents_id=58319.
- Park, J.-Y. (2006). An analysis of the financial performance according to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4(6), 61-77.
- PMG common sense dictionary. Retrieved from <http://terms.naver.com>.
- Rohe, W. L., & Stewart, L. S. (1996). Homeownership and neighborhood stability. *Housing Policy Debate*, 7(1), 37-81.
- Samuelson, P. (1938). A note on the pure theory of consumers' behaviour. *Economica*, 5, 61-71.
- Schuessler, K. F., & Fisher. G. A. (1985). Quality of life research and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11, 129-149.
- Seok, J. E. Kim, B. K., & Noh, H. J. (2012). Effect of married women's economic activity type on the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for children in Korea.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28(3), 87-120.
- Sohn, S.-H., & Yang, S.-J. (1999). Determinants of house-

- hold food consumption: Food at home and food away from hom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ietary Culture*, 14(5), 497-505.
- Song, K. S., & Gwon, Y. H. (2008). A study on quality of life's determinants of metropolitan areas.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20(4), 87-107.
-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2014). *Korean social trends 2014* (No. 11-1240245-000014-10). Korea: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 Statistics Korea,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Korea & Statistics Korea. (2015). *Result on the survey of household finances and living conditions 2014* (ISBN. 9772233695803). Korea: Statistics Korea,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Korea & Statistics Korea.
- Statistics Korea. (2015). Korean quality of life. Retrieved from <http://qol.kostat.go.kr/blife/main.do>.
- Statistics Korea. (2015). The trend of household 2012. Retrieved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4/3/index.board?bmode=read&bSeq=&aSeq=333733&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
- Stevenson, B., & J. Wolfers. (2008). *Economic growth and subjective well-being: Reassessing the Easterlin paradox*.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 Stiglitz, Joseph E., Amartya Sen and Jean-Paul Fitoussi. (2008).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CMEPSP-Issue Paper.
- Sung, Y.-A., & Yang, S. J. (1997). A Comparison of consumption expenditure patterns and their determinants of elderly and nonelderly household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5(5), 103-117.
- UN (2015). *World happiness report 2015*. France :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 Walden, M. (2005). Absolute and relative consumption of married U.S. Households in 1960 and 1996: The cleavers meet the taylors.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36(1), 77-98.
- Wikipedia. Retrieved from <http://ko.wikipedia.org>.
- Yang, S. J., & Lee, Y. G. (1997). Factors analysis of household expenditure on education: Focusing on the number of children and child sex ratio. *Journal of Consumer Studies*, 8(2), 81-101.
- Yang, S. J., & Yuh, Y. (2000). Human capital and consumption structure in husband - wife household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8(8), 141-157.
- Yang, S.-J., & Yuh, Y. (1998). Wife's occupations and household expenditure patterns. *Journal of Family Culture Studies Sangmyung University*, 12, 1-12.
- Yeongnam article. (2015.7.28). Retrieved from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50728.010310845590001>
- Yoo, T. K., & Ban, J. H. (2012). A study on the change in quality of life among mature-aged in Korea.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Kyungsoong University*, 28(2), 349-372.
- Yoo, J. M. (2012). The study of happiness determinants on the elderly according to sex and couple existenc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9(3), 375-400.

Received: May 15. 2015

Revised: September 17. 2015

Accepted: September 19. 2015